

석사학위논문

통일 대비 남·북한 교원양성체제 비교 연구

지도교수 고 성 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이 애 시

2006년 8월

# 통일 대비 남·북한 교원양성체제 비교 연구

지도교수 고 성 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일



제출자 이 애 시

이애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 국문 초록

통일 대비 남·북한 교원양성체제 비교 연구

이 애 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이 연구는 남북한 교육양성체제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하여 통일지향적 교원 양성체제를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비교 고찰하면서, 남북한 교원양성체제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 교사관과 교원의 지위,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그리고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III장과 IV장에서는 비교 분석의 틀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교원양성체제를 각각 고찰하였고, V장에서는 남북한의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을 분석 틀에 따라 비교분석한 다음,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반세기 이상을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 살아왔기에 남북한의 교원양성체제 역시 서로 다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인 학제, 초·중등 교원양성 체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방식 등에서 상호 유사한 점도 없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교원교육의 목표 및 교원의 역할 재조정, 둘째, 교사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 셋째, 합의 가능한 교사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넷째, 교육통합을 위한 학술 교류·협력의 확대, 다섯째, 교육체제 및 제도의 통합 방안 마련 등이다.

---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한계 .....	3
II. 이론적 배경 및 비교분석의 틀 .....	4
1.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 .....	4
2. 남·북한의 교육제도 .....	14
3. 비교 분석의 틀 .....	31
III. 남한의 교원양성체제 .....	37
1. 교사관과 지위 .....	37
2.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	40
3.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	45
IV. 북한의 교원양성체제 .....	50
1. 교사관과 지위 .....	50
2.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	54
3.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	58
V. 통일지향적 교원양성 체제 .....	62
1.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특징 비교 .....	62
2.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 .....	67
VI. 결론 : 요약 및 제언 .....	74
□ 참고문헌 .....	78
□ Abstract .....	81

## 표차례

<표 1>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	19
<표 2> 국민공통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20
<표 3>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	26
<표 4>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	27
<표 5> 초등교원 양성기관 현황 .....	41
<표 6> 중등교원 양성기관 현황 .....	42
<표 7> 교육대학 교육과정 영역별 학점 배당 기준 .....	47
<표 8> 각 사범대학의 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	49
<표 9> 북한 교원양성대학의 교과목 및 수업시수 .....	58
<표 10> 북한의 교원대학 교과목 .....	60

## 그림차례

<그림 1> 남한의 현행 학제 .....	15
<그림 2> 북한의 현행 학제 .....	23
<그림 3>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구성 .....	33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교육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발전, 경제발전, 문화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한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직결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교육의 발전 없이 국가발전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모든 국가가 자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교육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새로운 통일 한국의 국가 체제가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대두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국가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능한 교사의 확보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교육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즉, 교육은 한 나라의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미래의 우수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자아실현, 인격형성의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의 발전의 사회적 측면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교육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직, '교사'라는 점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곧 교사의 중요성이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양질의 교육은 바로 양질의 교사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 체제의 통일, 사람의 통일로 나누어 생각해볼 때 국토의 통일은 분단된 국토를 하나의 국토로 만드는 것이며, 체제의 통일은 국가 체제, 즉 남한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것이다. 끝으로 사람의 통일은 사람의 내면적인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의 통일

을 의미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내면적인 의식의 세계에서 상호이질성을 완화하고 적대감을 해소하며 나아가 남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교육은 통일 이전에도 통일 이후에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통일 이전에는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을 통하여 그동안 심화되었던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민족통합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통합의 가장 실효성 있고 중요한 교육을 최일선에서 직접 담당할 교원의 바람직한 양성 체제를 모색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교원은 민족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 및 통일을 이룬 후에도 국민 재교육의 실질적인 책무를 수행해야 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통일을 내다보는 교원양성체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의 남북한 교원양성체제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모색은 현재의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어느 체제이든 교육은 그 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에 기초한다. 지배적 사회이념은 모든 교육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육이념으로 투영되고, 정치원리로 국가체제를 결정한다. 남한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개인적 차원에서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기르고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게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적 차원에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교육한다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주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 교육의 이념적 배경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북한이 해방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련식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면서 북한 사회의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작용하였고, 주체사상은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당의 지도이념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이처럼 각각 추구하는 상반된 이념이 반영된 교육이념에 따라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남북한간에는 교육제도나 정책 등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 교육을 수행하는 교원의 양성체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현재의 남북한 교원양성체제를 비교·분석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교원양성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 학교교육제도 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양성체제 비교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III장과 IV장에서는 비교의 틀인 교사관 및 지위와 역할, 교원양성체도와 교원 연수,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의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각각 고찰한다. V장에서는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면서, 통일대비 교원양성체제를 모색해 본다. VI장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제안을 남기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한계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분석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교원양성체제 연구를 위하여 비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교원양성체제에는 초·중등교원의 양성에 한정하여 남한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북한은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이념과 목적, 교육제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비교분석의 틀로 남북한의 교사관 및 지위와 역할, 교원양성체도 및 교원 연수,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을 비교하고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겠다.

북한에 관한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의 수집·분석에 의존할 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입수 가능한 북한에서 산출된 1차적 자료(교육과정 및 내용)가 숫자적으로 극히 적으며, 그 산출연도도 최신의 것이 아닌 것이 많아서 최근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작성된 논문을 재인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2차적 자료도 그 종류와 수가 많지 않고, 그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내용의 신뢰도도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비교분석의 틀

이 장에서는 비교분석의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교원양성체제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교육이념과 목적, 교육제도 중 중요한 기본학제와 교육과정을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 1.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

어느 체제이든 교육은 그 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에 기초한다. 지배적 사회이념은 모든 교육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육이념으로 투영되며, 이에 기초하여 교육개혁이 수립되고 교육행위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이러한 사회의 틀 속에서 교육되며, 특히 한 사회의 제도 교육은 개인의 사고와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이념은 한 사회가 표방하는 교육의 목표와 본질, 교육운영의 원리 등에 대한 기본적 논리이며 교육에 있어서의 행동체계 등을 제시해주는 원리적 사고의 틀로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sup>1)</sup> 따라서 남북한 교육이념에 대한 고찰은 남북한 주민들이 지닌 가치와 지향점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교육이념과 목적은 교원양성체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 1) 남한의 교육이념

남한의 교육이념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

1) 교육개혁심의회(1998), 「교육개혁 종합구상 최종보고서 Ⅱ」, 교육개혁심의회, p.27.

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sup>2)</sup>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나타난 홍익인간은 개인적 수준의 인간(인격인), 사회적 수준의 인간(공민), 세계적 수준의 인간(세계인)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교육기본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홍익인간’을 법적으로 성문화하여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교육이념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이며, 이것은 민족주의 교육이념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명문화되어 남한 사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sup>3)</sup>

이와 같은 교육이념 아래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를 구분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4)</sup>

제38조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육목적은 살펴볼 때, 남한의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고, 건전한 정신과 비판력을 함양하며, 동시에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자질을 매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198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루어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교육의 내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 체계적·장기적·종합적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아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는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의 실현을 위한 전인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의 이념이 강조되었다. 여기서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 상(像)으로서 주인의식과

2)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교육법전」, 교학사, p.9.

3)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p.55.

4)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전계서, p.25.

투철한 국가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적인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주정신을 가진 ‘자주적인 인간’,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창조적인 인간’, 국민적인 기본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도덕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정신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기초교육,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면서, 특히 국민정신교육의 차원에서 정치사상교육과 사회윤리교육, 새마을교육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여 이전까지의 교육이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이 개헌, 선포한 헌법의 제29조 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하여 헌법에 평생교육이념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평생교육이념은 성인 교육, 계속교육의 개념과 더불어 사용되며 그 구체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기회의 확대, 성인교육·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5)</sup>

1992년에 시작된 문민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특히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변화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단순한 세기적 변화가 아닌 이른바 ‘문명사적 대변화’라고 하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열린 인간’이란 삶의 공간이 자기 고장과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제화·세계화·개방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진취적이고 당당한 한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교육이념은 교육체제의 변화를 꾀하면서 평생을 통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의미의 교육의 시기,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의 장소, 학점은행제 등의 활용을 위한 교육기관간의 통로, 대학교육, 중등교육, 교육대상의 개방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sup>6)</sup> 이러한 교육이념의 변천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도 시대별로 1950년대의 반공·도덕교육이 1960년대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국민정신의 개조교육으로, 1970년대에는 유신·새마을교육으로 나타났다가 1980년대에는 국민정신교육이 강화되었고, 1990년대에는 열린교육이념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교육개혁은 하나의 국제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대망의 21세기를 정보화·세계화와 그에 따르는 무한 경쟁시대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5) 교육부, 전계서, pp.88~92.

6) 교육부, 전계서, pp.92~95.

위하여, 또는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국력의 기초로서 교육을 주목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개혁 추세와 국가·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구상하여 발표하였는데,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더불어 사는 인간, 즐거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으로 제시<sup>7)</sup>하였다. 200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수용하여, 이를 다양한 교육관과 학교 교육의 현실 속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을 설정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을 겸비한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sup>8)</sup>

우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즉 우선 지·덕·체가 모두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이며, 이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꾸려나가는 개성 있는 인간이다.

다음으로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즉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과 발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일 자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일을 통하여 자아의 실현을 꾀하기 위한 진로 탐색과 개척 능력을 갖춘 인간이고, 폭넓은 교양과 직업적 능력을 갖춘 인간은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열린 인간이다.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즉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인간이다.

아울러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즉 자신과 차이를

7) 대통령자문회의(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p.20.

8)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p.89.

가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간이다.

남한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의 자질육성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 2) 북한의 교육이념

북한에 있어서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으로 일컬어진다. 이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풀이된다.<sup>9)</sup>

북한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바, 이를 위한 기본 원리로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북한의 현행(1998. 9. 5. 개정) 「사회주의헌법」 제43조도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라는 북한의 교육원리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모든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실천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북한 교육의 이념적 배경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북한이 해방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련식의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면서 북한 사회의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작용하였으며, 주체사상은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1970년 이후 당의 지도이념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사회주의사회의 기초건설기로서 공산주의 지도이념을 도입하여 소련식 사회주의교육을 적용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교육을 실천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편(1984), 「백과사전」(3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508

10)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형찬 외(1990), 「북한의 교육」, 서울:을유문화사, p. 482에서 재인용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소련 내에서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전개되고, 중소분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서서히 독자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방 초기의 조직적 약세를 극복하고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소위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자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으며, 다시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개정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전히 삭제하여 주체사상을 강화하였다.

정치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은 교육원리로도 채택되었다. 1976년 「어린이 보육교양법」, 1977년에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로 명문화되었고, 이 원리에 기초하여 북한 교육이 전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공산주의 사상적 요소를 점령하기 위한 교육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교육의 목적이 곧바로 주체사상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교육사업에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며 사회주의 교육의 발전방향을 가르쳐준다. 사회주의 교육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sup>11)</sup>

또한 “정치사상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정치사상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부터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다.”<sup>12)</sup>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주체사상 교육이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형찬 외(1990), 전게서, p.484.에서 재인용

12)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형찬 외(1990), 상게서, p.489.에서 재인용

또한 1984년의 리영복이 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에서는 책의 맨 앞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리념, 주체의 교육사상”이라는 큰 주제 아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1977년 9월 5일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집대성”<sup>13)</sup>되었다고 함으로써 주체사상 교육이념이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성문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 이념교육은 1970년대부터 강화되었지만 1980년대에 가서는 그 내용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주체사상 교육내용도 함께 심화되어 갔다. 즉 북한의 교육의 최고 목적은 주체교육으로 집결된 것이다. 북한의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주체사상 교육이념에 따른 내용이 위주가 되어 일반기초과목으로서 김일성 노작, 김일성혁명역사, 주체철학, 주체의 정치경제학, 사회주의헌법 등을 전 학년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배정하여 주체사상 교육이념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김일성이 사망하자 ‘사상대국’<sup>14)</sup> 건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으면서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을 다했듯이 김정일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외부사회로부터 오는 개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에 따른 교육이념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sup>15)</sup>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는 「사회주의 헌법」이나 「어린이 보양교육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등을 통하여 명시되고 있으며,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조항으로 7개항<sup>16)</sup>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76년 채택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동일한 맥락에서 취학 전 아동의 보육 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과 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 13) 리영복(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김동춘(1995), “북한의 교육”,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p. 6.쪽에서 재인용
- 14) 1999년 9월 9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한 데서 비롯된 용어로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제시한 통치목표이자 통치이념으로 볼 수 있다. 정영순 외(2002), “통일대비 북한교과서에서의 교육이념 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2. 한만길 외(2001), “남북한 교육체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0.
- 15) 한만길 외(2001), 상계서, p.10.
- 16)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의 내용은 교육사업의 기본방침으로서 우선적인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 부양성,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교육체계의 특성, 무료교육, 사회교육, 학령전 교육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 교양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는다.<sup>17)</sup>

한편 북한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1977년 9월 5일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동 테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교육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동 테제 발표일인 9월 5일을 교육자와 학생을 위한 ‘교육절’로 지정할 정도로 동 테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 8월 11일 건국 후 최초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을 채택하였다. 교육법은 테제를 계승하는 한편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의 실용적·개방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sup>18)</sup>

제3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지식기술,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면, 초기 소련의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하려던 체제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치사상교육을 학교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특수성에 비추어 북한의 교육이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먼저 북한의 교육이념은 주체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로서는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의 ‘충성동이·효자동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한 주체형 인간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공산주의 건설자’라는 보편적 의미보다는 ‘김정일 체제의 수호자’라는 체제 유지적 측면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학에 바탕을 둔 교육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의 교육학은 사회개조와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바탕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고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는 일이다. 노동의 과정에서 노동을 싫어하는 낡은 사상과 개인주의, 이기

17)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p.31에서 재인용.

18) 통일부 통일교육원(2006),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통일부 통일교육원, p.12.

19) 조호연(2004),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20) 통일부 통일교육원(2006), 전개서, p.13.



주의 등 비노동계급적인 사상요소를 쓸어버리고 공산주의 도덕<sup>21)</sup>과 공산주의 혁명가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운명공동체적 집단주의에 기초한 북한의 교육은 주체사상의 한 원리인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초해 개인은 전체를 위해, 나아가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혈연공동체적 집단주의로 의미의 변화를 맞고 있다. 개인이 속한 조직과 집단, 더 나아가 ‘수령-당-인민’의 위계적 통일체인 ‘사회주의 대가정’의 틀 속에서 즐거움과 고난 및 생사의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적인 집단주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 인재의 육성’이라는 교육목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학생과 교원들은 이러한 교육목적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들은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경제적인 궁핍에 대하여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 학생과 주민들은 실용주의적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주의 인재의 육성, 그리고 실용주의적 교육은 북한 교육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측면이다.

### 3) 남북한 교육이념의 비교



남북한의 교육이념을 비교하여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의 교육이념은 명목적으로 지향하는 이념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sup>22)</sup>

남북한 모두 교육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가이념으로서의 ‘민주’는 남북한이 모두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민주화의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민주주의 훈련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정치의 민주화, 교육의 민주화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사회주의

21) 2004년에 ‘공산주의 도덕’이 ‘사회주의 도덕’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북한의 현재가 공산주의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사회주의 단계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단계에 어울리는 도덕을 가르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학교명칭 역시 공산주의 단계의 ‘인민학교’에서 사회주의 단계의 ‘소학교’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지금 단계의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하여 공산주의 단계로 가자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우규(2004),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5.

윤종진(2004), “김정일 등장 이후의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변화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통일연구원, p.205.\*이 논문에서는 인용 원문에 사용된 교과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한만길 외(2001), 전개서, p.13.

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명목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본적인 교육이념이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남북한은 교육에서 민족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한 민족의 전통을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합리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체성과 전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체사상은 공산권의 몰락에 대응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성격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민족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한민족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전인적 인간교육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덕·체로 표현되는 전인교육 또는 인간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목표로서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과 같은 지적인 능력과 아울러 심리적 정서,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같은 정서·신체적 특성을 중시한다. 또한 남한은 초등학교 교육목표로서 ‘과학적인 능력’, ‘음악·미술·문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과학과 기술의 성과에 대한 인식’,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건전한 체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에서는 ‘예절바른 품성’,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 재능’, ‘다방면적인 지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로써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격의 형성, 즉 지적 능력의 개발, 도덕적 품성의 형성, 정서·신체적 자질의 겸비를 균형있게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향하는 이념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사적 흐름을 역류할 수는 없으며, 민족주의적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윤리를 단절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남북한의 보통교육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익히고, 기본 생활 습관 및 도덕적 품성을 도야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공통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 측면은 개인의 전면적 성장, 기초 학습 능력의 도야, 생활습관 및 도덕적 품성 함양,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남북한 교육 목적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교육이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우선 남한의 교육이념은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완성, 공민으로서의 자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습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의 습득을 통한 개인의 발달을 중시한다. 최근에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교육이념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주체사상이 국가의 지도적 이념으로 명문화되면서 ‘주체형 인간’이란 ‘인민·당·수령이 하나’라는 논리에 의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여 수령과 집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그리고 남한의 교육이념이나 원리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과 책임,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체로서의 개인을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교육을 전개해 나간다.

반면, 북한은 철저히 ‘운명공동체적 집단주의’에 기초해 있다. 학생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교육의 목적에 따라 배우고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집단주의 교육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 2. 남·북한의 교육제도

학교교육제도는 학제, 의무교육제도, 중등교육제도, 직업기술교육제도, 특수교육제도, 고등교육제도, 평생교육제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교원양성체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학제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남한의 교육제도

#### (1) 학제

남한은 해방 직후 미군정 하에서 ‘한국 교육 심의회의 교육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민주주의적 이념에 부합되는 새 학제로써 6-4-4제와 6-3-3제를 마련하여 시행되다가 1948년 정부 수립이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6-4-2-4제의 학제를 마련했으나 시행되지

---

23) 한만길 외(2001), 상계서, p.13.

못하고 1951년 현행 학제의 근간이 되는 6-3-3-4제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은 현행 학제로 운영되고 있다.<sup>24)</sup>

<그림 1> 남한의 현행 학제



의무교육기간

[자료 :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 서울:소화, p284(내용 일부 수정)]

24) 한림과학원(1998), 「남북한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 서울:소화, p.284.

위 학제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편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인문계열의 보통중등교육과 실업계열인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포함하는 4~6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위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대학원이 있다.

기본학제 속에 특수목적 교육체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등단계 이후에 설치되어 있다. 특수목적 교육체계는 예·체능, 외국어, 과학분야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인데, 2006년 3월 개교한 국제중학교와 예·체능계 학교로는 국악중·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외국어계 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계 학교는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남한의 교육제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 단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단계로 구분하며, 중등교육단계에서 전기(중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여 후기 중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이 분화되고 있다.<sup>25)</sup> 다음으로 만 6세부터 공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부분적 의무교육으로 실시되어 오다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총 9년 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란 일정 기관에서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기간과 학습시간 배당을 포함한 전체 계획을 말한다.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한 문화 또는 경험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편성하고 그들 학습 활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묶은 교육의 전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사회가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학교교육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에 국·공·사립의 설립 주체에 의한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재능이나 필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많지 않다.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조금 다양화되었지만 교육내용과 방법의 획일성도 문제이다. 남한의 학교교육은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운영이 거의

25) 한림과학원편(1998), 상계서, p.284.

2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4), 「교육학 용어 사전」, 하우, P.100

획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한 획일적인 교과서라는 근본적인 구조에 원인이 있고, 그 외에도 교육환경이나 교원연수와 같은 다른 제도들이 이러한 학교교육의 획일화에 기여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 개선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화된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다양화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교육과정의 유동성을 가져옴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남한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up>27)</sup>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고시한 것이 교육과정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전국적, 공통적, 일반적, 표준적, 대강적, 요강적 교육 내용 기준이라면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시·도 단위 기준의 보완적, 신장적 의미를 지닌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준이나 지역 지침이 세밀하다 할지라도 교육의 직접 실천자이고 주체인 교사가 어떠한 교육의도, 교육목적·목표, 내용, 방법 등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사들은 학교별로 마련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상과 같이 국가, 지역,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준별 분석은 국가의 교육이념과 방향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각 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가르치는데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7)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전게서, p.23.

남한의 학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은 취학전 교육이나 고등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법적,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이라는 형식교육기관에 대한 명문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문서로 결정·고시한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 의하여 1997년 12월 30일 「초·중등교육과정」으로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근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개념에서 벗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 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도 주목할만한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은 개인차의 성격과 그것을 적용하는 교과 특성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식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선,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구분		학년					과목별 비중	
		1	2	3	4	5		6
교과	국어			238	204	204	204	1,298 (22.3%)
	도덕	국어 210 238		34	34	34	34	344 (5.9%)
	사회	수학 120 136		102	102	102	102	504 (8.6%)
	수학	바른생활 60 68		136	136	136	136	800 (13.7%)
	과학	즐거로운생활 90 102		102	102	102	102	504 (8.6%)
	실과	즐거로운생활 180 204		-	-	68	68	136 (2.3%)
	체육	우리들은1학년 80 -		102	102	102	102	536 (9.2%)
	음악			68	68	68	68	400 (6.9%)
	미술			68	68	68	68	400 (6.9%)
	영어			34	34	68	68	204 (3.5%)
재량활동		60	68	68	68	68	68	400 (6.9%)
특별활동		30	34	34	68	68	68	302 (5.2%)
연간시간		830	850	986	986	1,088	1,088	5,828 (100%)

- ※1. 시간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입.  
 2. 1학년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임.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달 동안의 시간수)  
 3. 1시간 수업은 초등학교 40분을 원칙으로 함.  
 4. ( ) 안의 %는 학교급별 전체 시간 중 차지하는 교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한 전체 시간)  
 ※ 출처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p.6.

남한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세 가지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과는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등 10개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편성되어 있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갖도록 하였으며,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학년에 따라 교과의 점진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교육목표에 따르면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 하고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시 국민공통 기본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으로 <표 2>와 같이 편성되어 있다.

<표 2> 국민공통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학 교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1	2	3
교          과	국 어	170	136	136	136	선 택 과 목	
	도 덕	68	68	34	34		
	사 회	102	102	136	170 (국사68)		
	수 학	136	136	102	136		
	과 학	102	136	136	102		
	실 과	68	기술·가정 102   102		102		
	체 육	102	102	68	68		
	음 악	68	34	34	34		
	미 술	34	34	68	34		
	외국어 (영어)	102	102	136	136		
재량 활동	136	136	136	204			
특별 활동	68	68	68	68	8 단위		
연간 수업 시간 수	1,156	1,156	1,156	1,224	144 단위		

- ① 이 표의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 ② 1 시간의 수업은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2·3학년의 특별활동과 연간 수업 시간 수에 제시된 숫자는 2년 동안 이수하여야 할 단위 수이다.

※ 출처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 p.6.

제7차 교육과정이 필수 축소, 선택 확대라는 원칙에 의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 선택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선택확대는 학습자 존중 혹은 수요자 중심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북한의 교육제도

### (1) 학제

북한은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주의적 학교교육체제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왔다. 교육제도의 발달은 사회주의 이념과 북한의 독특한 역사발전의 과정을 반영하면서 시기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 교육제도의 발전과정은 정치사상의 변화와 교육의 전반적 발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sup>28)</sup>

우선 사회주의 교육 도입 시기(1945~1950)는 일제의 교육제도를 탈피하고 소련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전후 복구 시기(1950~1959)는 전쟁 후 국가건설을 위한 복구 및 교육 재건을 위한 방향에 역점을 둔 시기이다. 초등의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중학교 단계까지의 국민기초교육 실시를 계획하여 1958년에 7년제 의무교육제를 결정하였다.

또한 기술교육 강조 시기(1959~1966)는 학제 개편을 통해 기술교육 중심의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시기이다. 사상교육을 중요시하여 소련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혁명전통교양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의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유일사상 확립 시기(1966~1972)는 학제 개편을 통해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체사상을 도입하여 유일사상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1968년부터 김

28) 신호숙(2001), “북한의 교육·문화”, 양촌 민병천박사 고회기념저서 간행위원회편, 「북한학 입문」, 들녘, p.279.

일성 우상화 과목이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등장하여 유일사상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기(1972~1985)는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주체사상의 통치 원리가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회주의 교육학’ 및 11년제 의무교육제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고등교육 대중화 시기(1985~현재)는 1985년 이후 11년제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전 사회의 인텔리화’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시기이다. 1980년대 성인교육기관인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증설하여 모든 성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0개 정도의 대학을 ‘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학생모집, 교육시설, 교수수준, 교육재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예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 고등교육기관은 1993년 현재 대학은 280개, 고등전문학교는 470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텔리는 모두 16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sup>29)</sup>

북한의 기본 학제는 해방 이후 소련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5-3-3-4제였으나, 1975년에 완성된 학제를 기본틀로 유지하면서 제도적인 발전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행 기본 학제는 유치원 2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3~6년의 4-6-4(6)제로 운영되고 있으며<sup>30)</sup>,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 3년 및 박사원 2년이 있는데 <그림 2>와 같다.<sup>31)</sup>

29) 한만길(1997), 전계서, pp.41~53.

30) 북한의 초등학교는 인민학교, 중등학교는 고등중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려오다가 2002년 9월 1일 이후 초등교육기관인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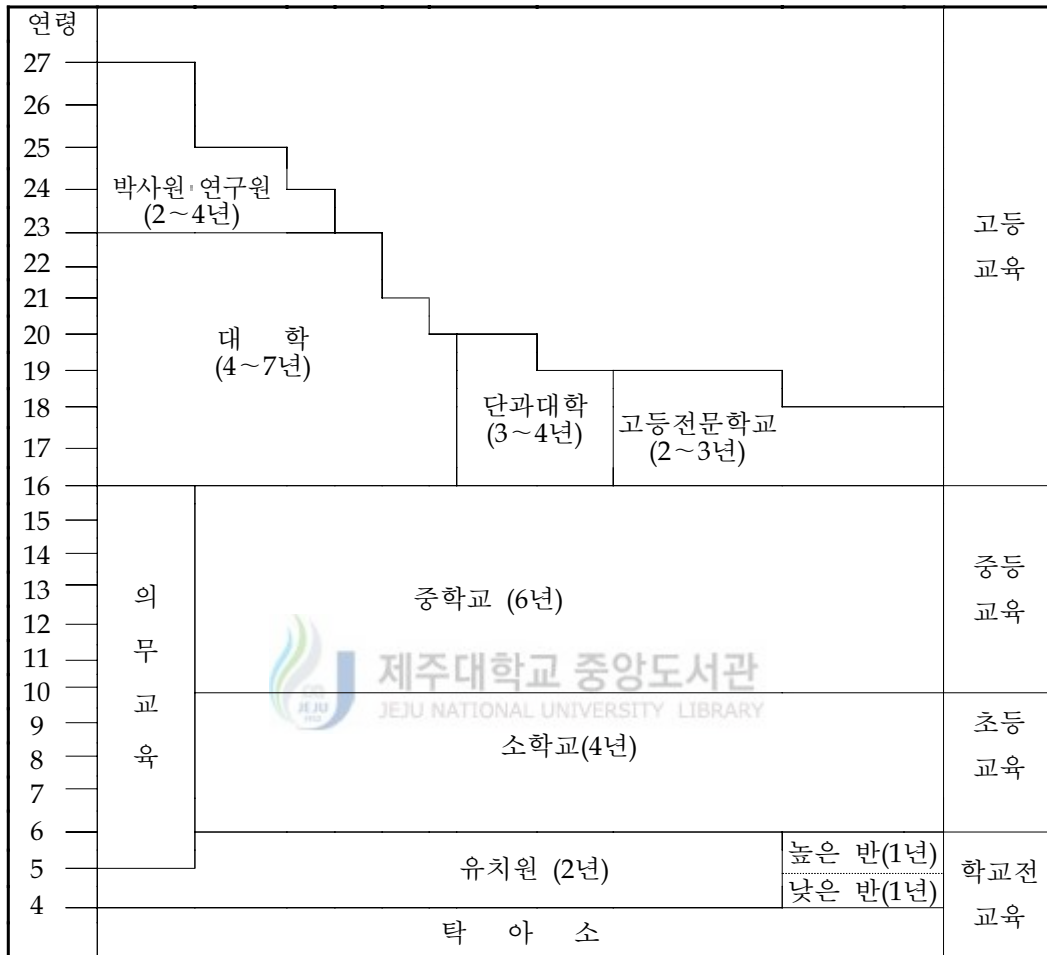
임순희(2005),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p.13.

조정아(2005), “북한교육: 체계와 문화”, 북한연구학회 주최 하계학술회의 주제발표문, p.324.

이종재 외(2005), “북한 교육 체제의 특성과 기능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3.

31) 이미경(2006),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2006 북한의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p.189.

<그림 2> 북한의 현행 학제



[자료 : 통일부 통일교육원(2006), 「북한의 이해」, p.189]

북한은 학교교육을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보통교육은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기간을 뜻한다. 그러나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기간에 속하는 유치원 높은반 1년의 교육은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45조에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학교를 준비하는 단계의 취학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통교육에 포함시키기보다는 학교전 교육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의 학제는 만 5세에 유치원 2년 중 높은반 1년부터 시작하여 소학교 4년, 중학

교 6년까지 총 11년 간의 의무교육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소학교 시기부터 복선형으로 조직되어 있다. 북한의 중등교육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보통교육과 엘리트교육으로 병행 발전하고 있다. 중등교육단계에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을 없애고 전기(중학교)와 후기(고등학교)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은 지난 1970년대에는 새로운 학제를 마련하면서 전기 4년, 후기 2년으로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없다.

한편, 특별학제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11년제로 운영되는 무용학교, 음악교육, 조형예술학교와 7년제인 외국어학교, 4년제인 체육학교의 영재교육기관과 특수층 자녀를 위한 11년제의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등의 특수목적교육체계의 학교가 있다.<sup>32)</sup>

북한의 고등교육은 일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으로 병행·발전되어 왔다. 일반 고등교육에는 종합대학·단과대학·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되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라 일컫는다. 종합대학은 3개뿐이고 단과대학과 고등전문학교가 다수를 차지한다.<sup>33)</sup>

성인 고등교육체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이라 일컫는다. 학교교육과 성인교육 또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원리에 따라 일찍부터 성인교육이 발전되었다. 사회교육기관 성격의 각종 직업학교와 당원들의 연수교육이 각급학교 수준에서 설치되어 있으며, 공장이나 농장에 부설되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과 같은 전문직업에 따른 연수기관을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 (2) 교육과정

북한 학교교육의 내용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① 정치사상교육, ② 과학기술교육, ③ 체육교육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첫 번째 내용은 정치사상교육으로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계급교양, 집단주의 교양, 노동애호정신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정신교양, 사회주의적 준법사상교양, 사회주의 도덕과 사회주의 생활양식교양 등이 주요 내용으로

32) 특수목적 교육체계는 남한의 교육용어이고, 북한에서는 별도의 교육체계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1999년 제정된 교육법에 '수제교육체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문성(2000), "통일한국의 교육체제에 관한 일 고찰", 「초등도덕교육」 제6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p.53

33) 통일부 통일교육원(2006), 전개서, p.16.

다루어진다.

교육내용의 두 번째는 과학기술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가르치며, 학생들에 대한 중등일반지식교육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체계를 통하여 실시된다. 과학기술교육은 철저히 당정책화 해야 하는 바,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시키고,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켜 진행해야 한다.

교육내용의 세 번째는 체육교육이다. 체육교육의 사명은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이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 북한은 특히 신체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체육교육 강화와 관련해 북한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체육활동 가운데 북한은 특히 청소년들이 집단체조 공연을 통해 조직성, 규율성, 사상성, 예술적 소양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교양사업의 성과라고 자부한다.<sup>34)</sup>

위와 같은 내용의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은 북한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교과목으로 세분화·구체화된다.

먼저 초등교육의 경우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소학교 4년 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sup>35)</sup>, 사회주의 도덕, 수학, 국어, 자연, 위생, 음악, 체육, 도화공작’ 등 총 11개 과목을 배우도록 편성되어 있다. 주당 수업시간을 보면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공작의 순이고, 이어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등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이상화 관련 과목이 각각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화 관련 과목들을 하나로 하여 주당 3시간씩 배정된 것으로 본다면 김일성일가 이상화 관련 과목은 국어, 수학 다음으로 교육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또한 전 학년에 매주 1시간씩 배정되어 있는 ‘사회주의도덕’ 교과서의 주요 지도내용에도 김일성·김정일 이상화, 김정숙·김형직·강반석 등 일가의 이상화가 포함된다.<sup>36)</sup> 그리고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나 되고

34) 김일성(1986),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찰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32 (조선로동당출판사), p.424, 임순희(2005), 전개서, p.17.에서 재인용

35) 1998년 말부터 1999년 4월에 걸쳐 유치원 높은반과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김정숙 혁명역사 과목 교수가 전반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임순희(2005), 상계서, p.18.

36) 조난심 외(1996), “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89~98.

자연과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표 3>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번호	구 분 교 과 명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1	1	1	1
4	사회주의 도덕	1	1	1	1
5	수 학	5	5	6	6
6	국 어	8	8	7	7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1	1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 화 · 공 작	1	1	1	1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2006), 「북한이해」, p.196.

중등교육의 경우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학교 6년 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활동’, 사회주의 도덕, 현행 당정책,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컴퓨터, 실습(남·녀) 등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김일성·김정일 ‘혁명활동’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걸쳐 주당 각각 1시간씩 배우며,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를 주당 각각 2시간씩 배운다. 김정숙 혁명역사는 중학교 4학년에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이로써 중학교 고학년(4~6학년) 과정에서는 김일성 일가 이상화 관련 과목에 대한 시간 할애가 저학년(1~3학년)에서보다 전 학년에 걸쳐 매주 1시간씩 김일성 일가의 이상화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도덕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교육내용의 큰 특징은 정치사상교육을 우선시 한다는 점이며, 경제난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사상적 이완을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방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는 <어린시절>나 <혁명활동> 등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목은 물론,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주체철학>, <혁명력사>, 그리고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표 4> 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활동					1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 어	5	5	4			
9	문 학				4	3	2
10	한 문	2	2	1	1	1	1
11	외 국 어	4	3	3	3	3	3
12	력 사	1	1	2	2	2	2
13	지 리	2	2	2	2	2	
14	수 학	7	7	6	6	6	6
15	물 리		2	3	4	4	4
16	화 학			2	3	3	4
17	생 물		2	2	2	3	3
18	체 육	2	2	2	1	1	1
19	음 악	1	1	1	1		
20	미 술	1	1				
21	제 도				1	1	
22	컴 퓨 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 1.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2.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 출처 : 통일부통일교육원(2006), 「북한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p.197.



북한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종합 방법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혁명의 실천으로 써 먹어야 '산 지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을 막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끌어내는 이론적인 기반도 된다.

최근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두 측면의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외국어교육과 과학기술교육 및 컴퓨터교육 등 실용적 차원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 있다.<sup>37)</sup>

1990년대에 들어서는 영어와 중국어가 그 동안 제1외국어였던 러시아어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어의 인기가 높아 북한당국은 대부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토록 하는 한편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들도 영어를 필수적으로 수강토록 하고 있다.

컴퓨터교육은 '90년대 말부터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 말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그리고 금성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함으로써,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소학교와 중학교의 컴퓨터 및 과학·기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별로 2~3개의 시범학교를 설정 '본보기 단위'로 조성하였다.

북한의 교육과정안<sup>38)</sup>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보통교육부문의 커다란 변화로는 '선택과목교육'의 도입이다. 2001년 4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도입된 선택과목 교육은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맞춘 '선택과목 교육과정'이다. 선택과목 교육의 목적은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따라 공업, 농업, 수산업, 임업 등 각이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과목들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산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sup>39)</sup> 이를테면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관련 과목, 어촌지역에서는 어업관련 과목, 산간지역에서는 임업관련 과목 등,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맞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북한은 선택과목제가 도입되면서 이에 맞춰 광업, 기계, 임업, 식료, 피복, 약전 등 6학년 교과서를 펴내기도 했다. 북한의 선택과목은 학생의 관심과 능력에

37) 이미경(2006), 전제서, p.197.

38) 북한에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건은 '교육강령'이라고 하고, 이 강령은 '과정안'과 '교수요강'으로 구분된다. '과정안'은 남한의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되며, '교수요강'은 교과별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임선택(2000),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82.

39) 조선중앙통신(2001년 2월 23일), 신효숙(2001), "북한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1호, p.76에서 재인용

따라 특정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택과목교육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목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또한 학생의 생활 환경과 직업적 요구와 관련된 실용적 교과목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sup>40)</sup>

### 3) 남북한의 교육제도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의 학교제도는 분단 이후 사회이념과 체제를 달리함으로 인하여 동질성보다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발전하여 왔다.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분석은 각 교육제도의 특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1)</sup>

우선 남북한 교육제도의 공통점은 우선 국가관리의 교육제도인 것이다. 남한의 학교제도도 철저한 국가관리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북한과 동일하다. 북한은 학교를 비롯한 전 교육·문화기관이 국가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자격부여와 임용과정, 학생선발 등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교육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초·중등교육을 국민 보통교육으로 간주하고 있다. 남한의 학교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초적 일반교육을 목표로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초·중등교육기관을 모두 평준화하였다. 북한의 국민들은 누구나 학교에서 동일한 중등의무교육을 마쳐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교의 계열이나 서열의 구분을 없앴다. 북한은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취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 보통교육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통교육 부문에 있어 학교의 다양화로 특수목적학교가 확대되고 있다. 남한은 특수목적학교의 확대를 통해, 북한은 수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남북한 교육은 1980년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특수학교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특수층 자녀교

40) 신호숙(2001), 상계서, p.77.

입순희(2005), 전계서, p.32.

이미경(2006), 전계서, p.198.

41) 한만길 외(2001), 전계서, p.17.

육을 제외한 영재교육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과학영재 뿐만 아니라 예체능과 외국어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특수학교의 출현은 국가의 요구와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학교 선택권을 반영하여 신설된 새로운 방식의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교육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남한은 법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완전한 9년제 의무교육제도인 반면 북한은 기본학제에서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까지가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초등교육기간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남한의 6년제와 북한의 4년제가 가장 현격한 차이이며 학교명칭도 남한의 ‘초등학교’와 북한의 ‘소학교’와 같이 상이하고, 중등교육에 있어서 남한은 각각 3년 과정의 전기(중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있으나 북한은 중학교 6년으로 통합되어 있다.

또한 특수목적 교육제도는 영재교육과 특수층 자녀교육을 포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 특수층 자녀교육은 북한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그와 같은 교육기관이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 교육제도에서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층 자녀교육의 실시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의 시작 시기가 남한이 국악중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중등 후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조기교육 체계를 갖추어 초등교육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진로 결정 시기를 보면 남한은 중등교육 후기에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북한은 중등 후기까지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교육단계에 실업계가 없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또한 남북한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 때 남한에서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사회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추구하는 사회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남한과 북한의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된 이념은 학생의 생활, 학습교과, 학습목표, 학습방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이 갖는 차이는 양 체제가 추구하는 이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은 각각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과정의

42) 한만길(1997), 전계서, pp.340~351.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이념의 차이를 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념의 차이를 통일과 그 이후의 체제통합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작업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다.

학교교육제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제와 교육과정의 차이는 교원양성체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3. 비교 분석의 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체제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교원양성제도의 비교·분석의 틀을 제시하겠다.

남북한의 교육이념, 교육제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보면, 우선 남한의 교육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의 양성을 강조하며,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완성, 공민으로서의 자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습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의 습득을 통한 개인의 발달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교육이념은 해방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를 두다가 1970년대부터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으로 정착되면서 교육이념도 이 주체사상에 근거하게 되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교육의 목표로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육성’을 강조하면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실천과 노동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교육이념에 따라 배우고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은 조직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국가와 당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양성을 목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정치사상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이념과 국가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교육제도의 기본인 학제도 차이가 있다. 남한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 기본학제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제가 분화되어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일반계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일반계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되고, 실업계고등학교는 공업고, 상업고 등 실업계고등학교와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된다. 1980년대 초에 설치된 특수목

적고등학교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고 등을 들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로는 특성화 직업학교 및 대안학교가 포함된다.

반면 북한의 학제는 유치원 2년(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3~6년이 기본학제로 되어 있다. 초·중등학교가 포함되는 학교교육체계와 별도로 특별학제의 범주에서 논의되었던 '수재학교'와 특수층자녀 학교가 1980년대 들어 특수목적교육체계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학교제도는 기간학제가 중심이 되고 별도의 특수목적교육체계가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남북한은 교육과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한의 교육과정은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율성을 늘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며, 과거 중앙통제적인 교육과정으로부터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 고등학교에 선택중심 교육과정 및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학교 재량활동을 신설·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를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sup>43)</sup>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다원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자유, 평등, 창조성, 다양성, 개성존중, 인권, 책임감 등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가치선택과 가치판단의 개방성을 허용하고 있다.<sup>44)</sup>

그러나 북한의 교육과정은 철저히 중앙(내각산하 교육성 보통교육부)에서 개발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지방이나 해당 학교, 그리고 교사에게 재량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과정안과 교수요강은 당과 김일성의 교시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제시된 교육지침은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교과에는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성'이 중시된다. 김일성 관련 교과와 사회주의 도덕은 물론이거니와 국어, 역사, 지리, 심지어 수학과 과학에서조차 정치 사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정치사상교육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교과의 교육내용에는 '혁명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 정신, 로동을 사랑하는 것,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프롤레타리아 정신, 사회주의 준법사상, 공산주의 도덕과 사회주의 생활양식'<sup>45)</sup>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의 함양을 목표로 충성, 질서, 청결, 노동애호, 근검절약, 협동 등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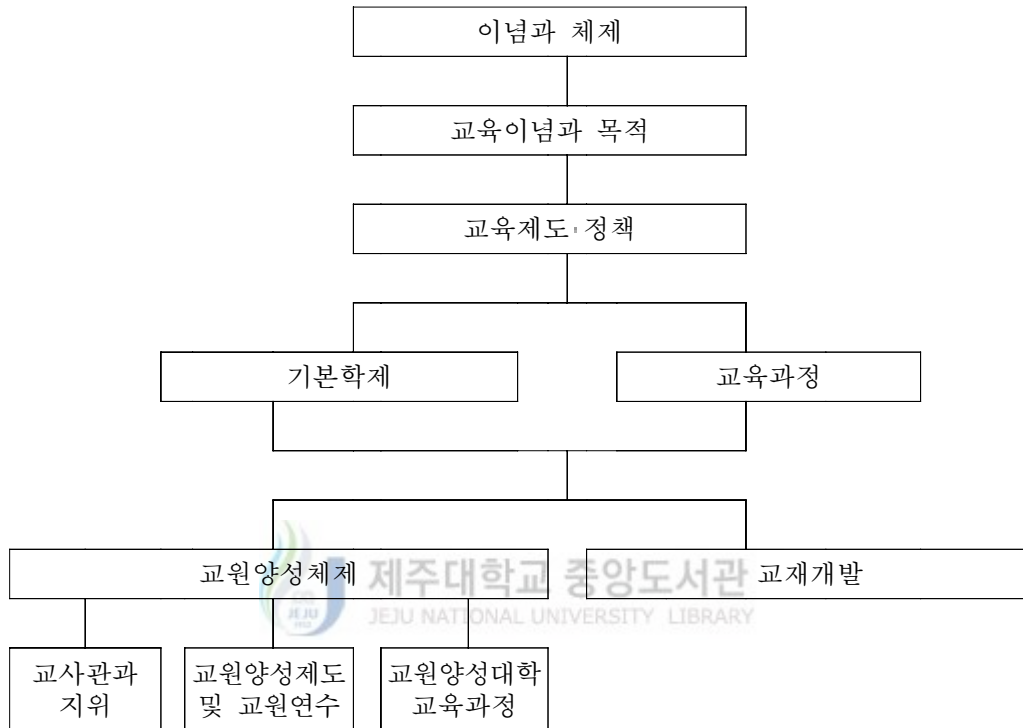
43)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http://www.moe.go.kr>

44) 한만길(1997), 전계서, p.365.

45)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형찬(1990), 전계서, pp.489~491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논의된 이론적 배경에 의하여 남북한의 교원양성 체제에 이르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원양성체제를 비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교사관과 지위,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연수,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의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분석의 준거로 설정하였다.

### 1) 교사관과 지위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교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과 자질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전통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직을 성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고, 교직을 신성시하여 성직 또는 천직(天職)이라고 인정하였다.

교육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가치규범을 전범화(典範化)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주체로서의 교사는 전통의 안내자이고 실천가

이며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즉 가르치는 매개체로서의 교재가 전통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전범(典範)이어야 한다면,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전범에 입문시키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전형적(典型的) 대면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웅장한 목소리로 성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들을 따라 나서기를 중용하는 ‘훈몽지사(訓蒙之師)’를 전통적 교사라 하고 있다.<sup>46)</sup>

또 다른 전통적 교사는 학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며 동시에 배우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위치에 있는 전도지사(傳道之師)로서의 스승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전도지사(傳道之師)로서의 스승은 강론(講論)을 통하여 도(道)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학생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스승이 없을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도(道)를 전하는 스승인 한 스승의 자격과 자질이 없이 스승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스승은 지식만 있어서는 안되고 지식과 덕행을 겸비한 사람을 스승의 자격과 자질을 갖춘 자로 보고 있다.<sup>47)</sup>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임금과 선생 그리고 부모를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 든가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석자 뒤에서 걷는다’는 등의 말들 속에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은 물론 교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교사의 주된 임무는 종족과 인류가 축적한 문화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교직이 주로 인간의 인격 형성을 돕는 일을 담당하며 단순한 지식과 기술 보다는 참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은 예로부터 전래된 전통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교사관은 교직을 군사부일체로서의 스승, 즉 만인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날 교육은 피교육자의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교육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틀 지움으로써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현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46) 최봉영(1998), “조선시대 儒學敎育과 ‘敎學’의 의미”, 『敎育史學研究』 제8집, p.9. : 강봉수(1999),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p.164에서 재인용.

47) 강봉수(1999), 상계논문, pp.187~189에서 재인용.

교사는 민족동질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 현실의 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을 이룬 후에도 교육이념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주체이다.

이러한 교사 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일대비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비교 준거로서 교사관 및 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선정하였다.

## 2)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정치 및 경제와 아울러 사회의 기본적 기능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 교원 양성의 중요성 또한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교원은 교육의 질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그 사회와 문화의 미래를 저울질하는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명과 기능을 지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 바로 교원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질적으로 향상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울러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민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원과 국민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중등교원의 양성제도가 말로 국가의 장래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가 민족 화합의 시기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준비가 통일 한국사회를 계도해 나갈 교원의 양성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의 준비 과정에서 남북한 교원 양성제도와 교원 연수를 비교해 보는 것은 남북한 제도 통합의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이념을 지니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념과 문화를 반영하는 교육체제와 교육 담당자인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체제에까지도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원 양성 제도의 실상을 파악하여 민족의 이질화와 교육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을 남북한에서는 어떤 제도 하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양성하는지 살펴보고, 교원의 연수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현재의 학생이 앞으로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 그러한 인간으로 육성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의 성과를 알아보는 평가 등이 반영된 청사진이며, 일선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교사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것처럼 교사의 질은 교사교육의 질을 초월할 수 없다’는 하나의 통념과 같이 학교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인은 교사변인으로, 다시 말하면 훌륭한 교사에게 훌륭한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교육에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수(教授)의 질, 교육과정 및 학습기술 등의 허다한 문제가 가로 놓여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교사교육상 가장 긴박한 것은 교육과정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좋은 교육을 위하여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기 전에 받게되는 교사양성 교육 과정은 장래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이후에 교사로서 보이게 될 인식과 행위에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태도, 기술에 관한 초기의 경험이 됨으로써, 교사 개인의 교육력의 기본적 틀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교직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양성 교육이 갖는 의의가 절대적인 만큼 교원양성 대학의 교육 내용은 적합성과 수월성,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육과정 활동의 영역에서는 남북한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편제와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남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과 북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남북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활동을 어떻게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틀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실제 교육 활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과정 편제 부문에서는 그 구성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수 시간수(단위)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교육내용 부문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Ⅲ. 남한의 교원양성체제

교육의 주체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남한의 교사관과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그리고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교사관과 지위

교육의 질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닌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에 의하여 결정되며, 교육과정 운영자로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하여 그것에 따라 새로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학생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7차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교사관은 ‘학생중심’의 교사관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교사의 존재를 교사의 고유한 역할이 아닌 학생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1966년 유네스코(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동으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 권고 제1항에서 ‘교원이라 함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교원의 지위라는 말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 능력에 인식의 정도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하여 본 교사의 근무조건, 보수 및 그 밖의 물질적 급부 등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교원의 지위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8)</sup>

48) 안창선 외(1999), 「교사론」, 교육과학사, p215.

우리나라 교사의 지위는 관직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볼 때 조선 시대에는 관학으로서 중앙에 성균관과 사학(四學), 그리고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 그리고 사학(私學)으로는 서당이 있었다. 성균관의 직제는 14종의 직책에 20~30명의 직원으로 채워졌는데, 그들의 품계는 총관리자인 지사가 정 2품을, 박사는 정 7품을, 학정은 정 8품을, 그리고 학유(學諭)는 중 9품인 최하위를 받았다. 일반 서민교육을 담당한 서당은 훈장이 평민의 자제를 지도하였는데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이 번성하였고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높았던 점으로 보면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낮았다고 보기는 어렵다.<sup>49)</sup>

서양의 신교육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 말기나 일제시대에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았다. 새로운 신학문에 대한 동경과 지식인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동경으로 사범학교의 인기는 높았으며, 교직이 새로운 직종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sup>50)</sup>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합법절차에 따라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원의 권리, 의무 등 법적 지위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로 되어 있다.<sup>51)</sup> 이는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효과의 극대화과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해 교사 스스로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한의 교원양성제도는 그 법적·제도적 측면을 정비해 왔으며,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 중등학교 교원을 분리 양성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에 대한 자격의 강화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 지위에 대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

49) 안장선 외(1999), 상계서, p219.

50)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전계서, p.9.

51)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상계서, p.22.

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원의 지위를 결정짓는 요인 중의 하나가 신분보장 및 직업의 안정이라면, 동 법 제43조 및 제48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신분보장과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하고 있다.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계의 노력으로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6호로 공포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원지위법 및 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교원의 예우 및 보수 우대뿐만 아니라

교권 확립과 교원의 신분 보장 및 교직단체의 단체 교섭·협약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27호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교원단체와의 교섭사항이 보다 잘 이행되어 교육정책 결정에 교원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가 일단 마련되었다.

교원 지위향상과 관련된 내용은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지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1988년 국무총리지시 제4호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교사의 직에 상응하는 보수를 결정변수로 볼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는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법조문상으로 교원의 보수는 우대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한의 교원 보수체계는 자격과 경력에 의한 보수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등한 학력과 자격, 경력을 가진 교원은 학교급별,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단일 호봉제를 지향하면서도 초·중등학교와 전문대학, 대학을 각각 구분한 기산호봉, 총승급기간, 봉급과 수당을 적용하고 있는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지위보다도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교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sup>52)</sup>

## 2.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남한의 교원양성제도는 그 구조와 조직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당초부터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사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입학시켜 교사로 양성하는 목적형 대학과 별도의 교원양성 목적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두거나 학사학위 소지자를 뽑아 일정기간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임용하는 개방형 체제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시대별로 다양한 변천을 거쳐왔다.

52) 안창선 외(1999), 전계서, p.252.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1895년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이다. 해방 후 미군정기간에는 초등교원의 수요에 대비하여 중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를 증설하고 단기 교원양성과정을 설치하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0년대에는 새로 제정한 교육법(1949년 12. 31 제정, 공포)에 의거 초등교원을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3년제의 사범학교에서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 설립된 17개 사범학교를 국립으로 이관시키고, 사범학교 강습과 및 초등교원양성소 등을 설치하여 1년 이내의 단기과정으로 초등교원을 양성하였다.

남한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2년제 교육대학이 법제화되어 1962년 3월에 전국 18개의 사범학교를 승격시켜 10개의 2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하고, 6개의 교육대학을 증설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또다시 초등교원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단기과정의 임시초등교원양성소를 교육대학에 부설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교부는 1973년에 임시초등교원양성소를 폐지시키고, 교육대학의 수를 16개에서 5개를 일반대학으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초등교육의 전문화 요구와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81년 서울·부산·대구교육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198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11개 교육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설치된 초등교육과와 1985년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서도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전국 11개 교육대학(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춘천·청주·공주·전주·진주·제주교육대학교)과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로서, 13개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sup>53)</sup> 이러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기관수와 2005학년도 편제정원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초등교원 양성기관 현황 (2005. 9. 1기준)

양성기관	설립별	기관수	2005학년도 편제 정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교육대학	국립	11	6,015	5,615	5,015	4,855	21,500
한국교원대	국립	1	160	160	160	160	640
이화여대	사립	1	50	50	50	50	200
합 계		13	6,225	5,825	5,225	5,065	22,340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와

53) 안기성 외(1998),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집문당, p.113

남한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고등교육법 제42조에서 “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sup>54)</sup>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립대학 위주이다.

한편, 남한의 중등교원 양성은 개방형을 취하고 있어 중등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범대학 또는 교원대학(한국교원대학교)이나 일반대학의 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일반대학(산업대학 포함)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졸업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중등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중등교원 양성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사범대학을 들 수 있는데, 사범대학은 1946년 서울대학교에 설립된 이래로 2005년 현재 40개 대학에 달하고 있으며, 2005학년도 현재 설립별 기관수와 편제 정원 등 중등교원양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중등교원 양성기관 현황 (2005. 9. 1기준)

양성기관	설립별	기관수	학과수	2005학년도 편제 정원(승인인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사범대학	국립	13	145	3,962	4,030	4,030	4,030	16,052
	사립	27	181	6,748	6,748	6,748	6,688	26,932
	소계	40	326	10,710	10,778	10,778	10,718	42,984
교육과	국립	8	17	501	501	501	501	2,004
	사립	49	98	3,190	2,880	2,575	2,085	10,730
	소계	57	115	3,691	3,381	3,076	2,586	12,734
교직과정	국립	33	821		6,471	6,383	6,338	19,192
	사립	119	2,092		16,270	16,183	16,003	48,456
	소계	152	2,913		22,741	22,566	22,341	67,648
합 계		249	3,354	14,401	36,900	36,420	35,645	123,366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이러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게 되면 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자 및 교육대학원의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54)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전게서, p.54.

는 초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사범대학 졸업자 및 교직과목 이수자에게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공립 초·중등교사 공개전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사 임용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180시간 이상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을 거쳐 연수성적이 60점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남한에서의 교사 자격 종별은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특수학교 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중전의 양호교사) 및 영양교사의 9종으로 구분된다.

교사의 자격은 검정에 의해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 양성기관이 주관하는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을 받는다.

시험검정은 교사 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상 필요에 의해 시행된다. 시험검정의 대상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검정의 일부, 그리고 실기교사 자격검정의 일부에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초·중등학교 2급 정교사의 경우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무시험검정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의 경우는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및 교육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한 자에게 당해 대학의 장이 무시험검정을 거쳐 수여하게 된다.

교원의 연수는 현장 교원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교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교원 개인의 전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직전교육인 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날로 변화해 가는 시대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와 지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즉,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연수가 필요하다.

남한에서 교원의 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up>55)</sup>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내지 제38조에서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

55)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상게서, p.9.



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6)</sup> 남한에서 교원의 연수도 이상과 같은 범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의 교원 연수의 종류는 대체로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그리고 특별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자격연수는 상급 자격이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으로서 2급 정교사과정, 1급 정교사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2급 정교사과정 연수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자격연수의 연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180시간 이상이다. 자격연수의 연수과정별 교육내용은 「교원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에 준해 설정하고 있다.

일반연수는 교육의 이론 및 방법 등에 관해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연수로서 일반연수의 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일반연수의 연수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무연수는 직무수행과 직장 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배양을 위한 연수로서, 직무연수의 연수과정은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휴직하였다가 복직하고자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하는 것으로,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남한의 교원연수원은 국립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연수원, 국립사범대학부설 중등교원연수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서울대사대부설 교육행정연수원,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시·도 교원연수원 등이 있으며,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위해 연수기관을 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시·도 교원연수원이 활발하게 교원연수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대학부설 초·중등교원연수원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시·도 교원연수원은 각 시·도의 교원연수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지역별로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연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98년 3월부터 새로 적용된 교원연수 이수학점제에 따라 이제 연수는 교원들에게 새로운 과제로 부여되었다. 교원연수 이수학점제는 교원의 질을 높이고, 현장교원의 참여의식을 개선하여 연수효과를 높이며, 연수를 받은 교원이 승진하는데 있어서 평가자료로 활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6)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상게서, p.1488.

교원연수·연구 학점화 대상은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 취득, 연수 이수, 연구 활동 실적 등이며,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은 교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이 때의 대학원은 국내·외 및 주·야간·계절제 대학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초등교원의 경우는 취득학점 전부를 인정하지만 중등교원은 교육대학원의 경우 취득학점 전부를 인정하지만 여타 대학원의 경우는 당해 교원의 대학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동일(유사)하지 않은 경우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교원자격증의 전공 또는 부전공의 교과와 동일한 경우는 전부 인정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거 시행되어 취득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능력 어학관련 능력검정이 당해 교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교원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연수과정 단위로 연수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연구활동 실적은 연구대회 입상실적, 연구·시범·실험학교 참여실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구교사 입상실적, 과학발명품 전시회 입상, 저작물 또는 학회지에 발표한 개인연구보고서 등을 학점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회의 입상 등급은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연수이수 학점화에 따라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에게는 다소의 학습 부담이 따르지만, 수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충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게 되며, 근무평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남한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11개의 4년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설치된 초등교육과가 있는데,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교육과정과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중추인 국립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제41조에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sup>57)</sup>라고 교육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는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교원양성대학의 교육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함.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함.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

또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는 “국가 사회가 기대하는 유능한 초등학교 교사 양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sup>58)</sup> 있는데, 이는 11개 교육대학의 거의 공통된 교육목표이다.

- ① 전인적 교양과 교육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른다.
- ②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확고한 인생관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한다.
- ④ 초등학교 각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습득한다.
- ⑤ 초등교육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981년부터 점차적으로 승격이 시작되어 1984년에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이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교육과정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전공과정은 교육학 교육, 교과교육학, 실기 및 실습, 자유선택과 심화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개 교육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평균 144학점으로 교양과정 37학점(25.7%), 전공과정은 107학점(74.3%)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학교육은 종래 교직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 1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교육학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통합교육 및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총 51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예·체능 실기 과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실기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

57)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상계서, p.54.

58) 제주교육대학교(2005), 「대학요람」, p.47

여 외국어 및 정보화 실습과정을 교양과정 외에 별도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심화과정은 12개과 가운데 하나의 과를 정하여 초등교과교육을 보완하고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21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유선택과정은 대학 자체에서 2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고, 4학년 재학기간 중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2학점이상 이수한 경우 대체 인정하고 있다.<sup>59)</sup>

교육실습은 총 4학점으로서 참관실습(2주), 수업실습(4주), 실무실습(2주)의 3개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나<sup>60)</sup>, 교육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봉사실습은 교육실습의 일환으로 참관실습 전학기까지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P/F제로 운영하고 있다.

<표 7> 교육대학 교육과정 영역별 학점 배당 기준 [2006학년도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인	춘천	청주	공주	전주	진주	제주	평균	
교양과정	40 (28.6)	36 (24.8)	44 (30.3)	36 (24.8)	35 (24.3)	34 (24.3)	40 (27.6)	40 (27.4)	38 (26.2)	30 (20.7)	35 (24.1)	37 (25.7)	
전공 과정	교육학	18	20	18	20	20	19	18	17	18	16	18	
	교과교육학	50	63	48	50	47	49	48	51	46	63	51	
	외국어, 정보화실습 및 에·체능실기	8		6	8	12	12	16	11	10	11	17	
	심화과정 (부전공)	20	22	21	21	21	21	18	21	21	21	20	
	교육실습	4	4	4	4	5	3	3	4	4	4	4	
	자유선택			4	6	4	2	2	2	8		2	3
	졸업논문	P/F	P/F	P/F	P/F	P/F	P/F	P/F	P/F	P/F	P/F	P/F	
	소 계	100 (71.4)	109 (75.2)	101 (69.7)	109 (75.2)	109 (75.7)	106 (75.7)	105 (72.4)	106 (72.6)	107 (73.8)	115 (79.3)	110 (75.9)	107 (74.3)
졸업이수학점	140 (100)	145 (100)	145 (100)	145 (100)	144 (100)	140 (100)	147 (100)	146 (100)	145 (100)	145 (100)	145 (100)	144 (100)	

※ 1. ( )안의 숫자는 비율임

2. 서울·부산·진주교육대학교의 자유선택영역의 과목은 교육과정 편제표에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교과교육학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전국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제주교육대학교(2005), 「대학요람」, pp.48~49.

서울교육대학교의 9개교 홈페이지]

59) 제주교육대학교(2005), 상계서, p.50.

60) 제주교육대학교(2005), 상계서, pp.48~51.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구조 및 교과 내용에서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범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의 함양, 국민교육이념과 그 실천 방도의 체득,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의 함양을 그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의 교육목표와 동일하다.

사범대학의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은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140학점을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과목의 편성은 다른 단과대학의 교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학점 배점 기준은 전체 과목 학점의 20%(평균 146학점 중 30학점) 수준이며,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공과목의 편성을 보면 대학에서 재학 중 전공할 수 있는 학과는 2개학과 이내로 하되, 하나의 학과만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전공학과 이외의 학과를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범대학 재학 중 전공과목 대하여는 42학점 이상, 부전공 과목에 대하여는 30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1)</sup>

중등교원 양성 면에서 사범대학을 특수 목적 대학으로 차별화하는 가장 핵심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국어국문학 전공과목과 일반교육학을 단순히 섞어 놓은 것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사범대학의 다른 학과들의 공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원양성과 관련된 학과목들을 일반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중 교과교육학 과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직과정의 일정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나, 국어교육과를 다니는 것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면에서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각 교과목에서의 목표 설정과 내용 선정, 내용 조직,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교사교육의 핵심이지만, 실제로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1998년에 실시한 사범대학 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 덕분에 사범대학들은 평가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실시하였고, 교과교육학

---

61)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과목을 대폭 강화하였다. 각 대학의 사범대학 교육과정 편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각 사범대학의 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학 교	구 분	교양과목	전 공 과 목				졸업 이수 학점	비 고	
			전공	심화 전공	교직 과목	일반선택 (자유선택)			소계
강원대학교		30 (20.7)	57 (39.3)	41 (28.3)		17 (11.7)	115 (79.3)	145 (100)	
경북대학교		30 (20.0)	50 (33.3)		20 (13.3)	50 (33.3)	120 (80.0)	150 (100)	
경상대학교		25 (16.7)	70 (46.7)		12 (8.0)	43 (28.7)	125 (83.3)	150 (100)	
공주대학교		30 (20.0)	62 (41.3)		24 (16.0)	34 (22.7)	120 (80.0)	150 (100)	
부산대학교		30 (21.4)	51 (36.4)	24 (17.1)	20 (14.3)	15 (10.7)	110 (78.6)	140 (100)	
안동대학교		38 (25.3)	42 (28.0)		20 (13.3)	50 (33.4)	112 (74.7)	150 (100)	
전남대학교		24 (17.1)	69 (49.3)	21 (15.0)		26 (18.6)	116 (82.9)	140 (100)	
전북대학교		36 (24.0)	42 (28.0)	21 (14.0)	22 (14.7)	29 (19.3)	114 (76.0)	150 (100)	
제주대학교		26 (18.6)	60 (42.9)		17 (12.1)	37 (26.4)	114 (81.4)	140 (100)	
충북대학교		36 (24.0)	45 (30.0)	21 (14.0)	21 (14.0)	27 (18.0)	114 (76.0)	150 (100)	
한국교원대학교		21 (15.0)	51 (36.4)		15 (10.7)	53 (37.9)	119 (85.0)	140 (100)	
평균		30 (20.5)	55 (37.7)	10 (6.8)	16 (11.0)	35 (24.0)	116 (79.5)	146 (100)	

- ※ 1. ( )의 숫자는 비율임  
 2. 각 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기준으로 하였음  
 3. 대부분의 대학이 복수전공 가능

[자료 : 강원대학교 등 해당 대학 교육과정]

그리고 교직과목의 편성과 관련해서 사범대학에서는 별도의 규정없이 일반대학의 학생 중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교직과목의 과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교직과정의 과목은 교직이론 영역, 교과교육 영역, 교육실습 영역에서 총 20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IV. 북한의 교원양성체제

북한의 교원양성대학은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시행되는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의 교사관과 지위와 역할,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그리고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교사관과 지위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해 온 민족이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문 급속한 학교 팽창과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를 달성했다. 북한도 ‘교육의 나라’로 자부하면서 해방 이후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북한의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분야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강령의 성격 을 띠는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 담당자이다.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 상태가 결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sup>62)</sup>라고 명시하여 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1999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교육법」은 교직원을 교육일군으로 부르고 있으며, 교육일군의 구분과 역할, 사회적 지위 등(제25조·제26조·제27조)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일군의 품성과 자질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sup>63)</sup>하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25조 교육일군에는 교수사업을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교육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62)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형찬 외(1990), 전제서, p.509에서 재인용

6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1999 제정),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제26조 교원은 교수 사업을 직접 맡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일군은 고상한 도덕 품성과 높은 과학기술적, 교육실무적 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일군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

북한은 교육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 임무라는 사실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 제1장에서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북한은 교원의 임무에 대해 “교수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교원의 우선적 임무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과외 학습과 과외 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2)교원의 위치와 역할에서 교원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64)</sup>

- 1) 교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 것이다. 교수사업은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 혁명사업이다. 교원은 교수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 학습과 과외 활동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 2)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혁명화, 노동계급화되어야 한다. 교원들을 혁명화하는 기본방도는 그들 속에서 정치적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원들 속에서 당조직 생활,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 3) 교원들은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교원들이 교수교양사업을 잘하려면 정치 사상적으로 견실할 뿐 아니라 과학리론자적 자질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교원을 젊은 세대를 혁명의 계승자로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적 혁명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원들은

64)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형찬 외(1990), 전게서, p. 에서 재인용



고상한 도덕 품성과 높은 과학 기술적, 교육실무적 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교원의 역할에 상응하여 대우도 그 동안 정책적으로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교원의 역할에 부응하여 교원의 모든 교육활동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교원들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교수활동은 철저히 중앙집권적이며 교원에 대한 사상적 요구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교원들은 우선 정치사상 교양의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학생을 지도한다. 또한 북한 교원들은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수행한 데 있어서도 성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교원의 권위는 남한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권위주의적 성격 탓도 있겠지만, 교사의 권한과 권위 자체가 대단하여 학생들은 선생님께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으며, 누구도 교사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 그 동안 북한에서 교원은 소위 '직업적 혁명가' 또는 사범계 대학 입학시부터 출신성분과 당성을 중요시하여 선발하는 등 최고 출신 성분의 엘리트 계층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북한은 좋은 사회적 평가와 대우를 제공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교원을 존경하고 배려해 주고 있으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고, 교원들의 일반적 월급 또한 사회적 평균으로 볼 때 높은 편이다.

북한에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교원의 자격제도를 강화하였다. 1967년 9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교원 양성제도를 정착시켜 사범대학과 사범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정규 교원 양성기관을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교원의 학력제도, 교원자격, 검정제도와 교원 진급제도도 규정하였다.<sup>65)</sup>

북한 소학교와 중학교 교원의 자격은 1급에서 5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정규 급수 외에 '공훈교원', '인민교원'이라는 명예 칭호를 부여하는데 이를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즉, 북한 교원의 급수는 인민교원, 공훈교원, 1

65) 한만길(1997), 전계서, p.237~238.

급 교원, 2급 교원, 3급 교원, 4급 교원, 5급 교원의 순으로 나누어진다.<sup>66)</sup>

1996년 5월 이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최저 급수가 4급이었으며, 교원들의 봉급에 부가되었던 년한 가급금은 1~3년까지는 10원, 4~10년까지는 30원, 10~20년 이상은 50원을 계산하여 기본 생활비에 포함시켜 주었다. 그러나 1996년 5월 이후부터 년한 가급금이 없어졌고, 그 대신 봉급이 올라갔으며 교원의 급수도 4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다시 정해졌다. 대학을 갓 졸업한 교원의 급수는 4급에서 5급으로 내려갔으며 봉급의 차이도 달라졌고, 봉급의 결정도 교원의 년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실력과 교수교양 능력, 학교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sup>67)</sup>고 한다.

1997년 현재, 대학을 졸업한 5급 교원의 월급은 105~120원이며, 교원대학을 졸업한 4급 교원은 121~125원이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자격교원이라고 불리는 3급 교원의 월급은 125~130원, 2급 교원은 130~135원, 1급 교원은 135~140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sup>68)</sup>

탈북교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원들은 대체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법률상의 임무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비교적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이와 같은 교원의 임무가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교원자질향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69)</sup>

또한, 1995년에 북한교원들은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봉급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그 전에는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좋았고 학부모들이 교원을 존경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교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진 상황으로 성분이 좋은 간부 자녀들은 사범대학 졸업 후 보위부나 안전부, 시당이나 군당 지도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시, 군 교육부나 학교 교무주임 등으로 다 빠져나가고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원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sup>70)</sup>

북한에서의 교원은 법률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부업을 하는 것이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김일성 사후

66) 한만길(2000),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06.

67) 탈북자의 증언 : 상계서, pp.106~107에서 재인용

68) 한만길(2000), 전계서, p.107.

69) 민주조선(2001. 7. 24) : 연합뉴스 2001. 8. 7에서 재인용, 한만길 외(2001),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p.123.

70) 김희영(차광수대학 졸업), “끊임없는 업무, 배고픈 교원생활”, 한만길외(2001), 「북한에서는 어떻게 공부할까」, 우리교육, p.175, p.239.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무너진 북한 교육 체계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교원들의 인기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교직에 배치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탈북자의 증언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선생님을 원종자라 칭하는데, 바로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이고, ‘선생은 하늘’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 북한의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sup>72)</sup>고 한다.

## 2.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북한에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범교육의 목적과 사명은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원을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데 있다.<sup>73)</sup>라고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다음과 같이 직업적인 혁명가인 교원을 양성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 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교원양성기관들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야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이 나올 수 있으며, 그래야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 수 있다. 교원을 키워내는 대학들에 좋은 학생들을 골라 넣으며, 이 대학들의 교수교양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sup>74)</sup>

북한에서는 교원양성대학으로 각 도와 시에 원칙적으로 2개의 사범대학, 2개의 교원대학을 설치하여 당해 지역의 교원 수요에 맞추어 각각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으

71) 한만길 외(2001), 전계서, p.138.

72) 조현철(가명, 전 함경도 제1사범 혁명역사학부 졸업, 2002년 입국), 북한 사범대학 출신교원, “탈북인사 대담”, 「통일한국」, 2005년 4월호, p.74.

73) 과학·백과사전 출판사편(1984), 「백과사전」(3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508 : 한중하 외(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32에서 재인용

74)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형찬 외(1990), 전계서, p.510에서 재인용

나, 교원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교원교육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각 도와 직할시에 1개 대학씩만 남기도록 하여 전국에 15개의 교원대학이 있다.<sup>75)</sup>

교원대학은 11년제 의무교육 졸업생을 모집하여, 교양원 학부와 교원 학부에서 각각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키워내는 교원양성대학이다. 최초에는 1946년에 창설되었으며, 창설 당시에는 중학교 졸업생들을 받아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2년제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편·개명을 거쳐 1972년에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사범대학은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중학교 졸업생과 제대군인 그리고 현직교원 중에서 대학 미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수업 년한은 4년이다.

김형직사범대학은 북한의 사범교육기관 중에서 최고 기관이며, 가장 권위있는 사범교육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학이 다른 사범대학에 대해서 우월성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학에서 지방의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 및 여러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관리를 양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적으로 전국 범위에서 교원을 위탁 모집하고 위탁 배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학교는 북한의 중심적인 교원양성 기관으로서 내각 산하 교육성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대학은 1948년에 북한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사범대학으로서 처음에는 평양사범대학, 그 다음에는 평양 제1사범대학으로 불리다가 1975년 지금의 명칭인 김형직사범대학으로 개칭되었다. 수업연한은 예비과 1년과 본 학부 5년을 합하여 6년이다. 이 대학에는 김일성 혁명학사 등 13개 학부가 있으며, 특히 교육학부는 전국의 사범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대학은 북한의 사범대학 중에서 박사원을 설치한 유일한 대학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교원에 대한 재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교원에 대한 재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현직 교원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체제를 세우고 현직교원들을 계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언제나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워야 한다. 사범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교수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75) 한중하 외(1994), 전계서, p.32.

한만길 외(2000), 전계서, p.104.

교수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대폭적으로 교원의 수를 늘려야 했으므로 부족한 교원을 급히 충당하다보니 그 결과 교육학적 지식, 교과목 지식 및 교수방법면에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원의 수가 늘어나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1978년 김일성이 '사회주의 교육 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연설에서 교원의 자질에 관하여 비판하자, 북한에서는 현직 교육을 강화하여 교원의 질을 높일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고자 야간교육과 통신교육, 그리고 단기강습 등의 교원대상 현직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북한의 교원 재교육 체계는 교원들을 다시 교육·교양하는 체계로서 재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보통교육 부분의 연수는 각 시·군에 건립되어 있는 교원재교육 강습소에서 이루어지는데, 1개월 강습반, 3·6개월 재교육반, 1년제 재교육반 등이 있다. 둘째, 전문학교 교원에 대한 재교육은 일부 대학과 전문학교에 설치한 재교육강좌, 교원강습소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대학교원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서 김형직 사범대학에 재교육학부가 있어 각 도 사범대학 및 교원대학 교원의 재교육을 맡고 있다. 넷째, 교육행정가들의 재교육은 평양의 중앙교육정치간부학교와 그 산하에 있는 각 도의 교육정치간부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밖에 통신교육을 이용한 연수체계도 있다.

교원에 대한 재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강습은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으로 실시하고 교원재교육강습소에서 담당하는데,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는 재교육학부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무자격 교원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하여 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시험제도는 3년에 한 번 시험을 실시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제고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국가 시험은 교원들의 정치사상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진급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교육 과정이 있다. 여기에는 교수강연, 교수토론회, 논문발표회, 시범상학, 현장연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술토론회, 과학논문 발표회, 경험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시범상학은 수업연구, 수업발표회라고 할 수 있으며, 한 교사가 교과 수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다른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도화된 교원 재교육 이외에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성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교원자격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교원에게는 사범대학 졸업생들만 얻을 수 있는 ‘자격교원’ 증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교원들은 통신대학에서 연수하거나 독학하여 ‘자격교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 교원들의 전반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는 각각 교원자격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력이 미달하는 교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교원의 급수 시험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급수사정위원회’에서 위임하여 ‘도 급수사정위원회’에서 집행한다. 한편 인민교원과 공훈교원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석의 정령으로 발표하여 위임한다. 1·2급 교원은 전국 통일시험을 봐야하고 3급이하 교원들은 각 도에서 통일적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원들은 5년에 한번씩 급수 판정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급수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며, 1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자질향상 시험에서 최우등이면 봉급이 올라가고 낙제하면 봉급이 내려간다.<sup>76)</sup>

교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1회씩 교원 승급 및 강급 시험을 치러야 한다. 여기서 승급시험은 교원 자신의 자격 기준에 맞춰 시험을 통해 승급을 하는 과정이며, 강급 시험은 교원 자신의 급수를 지키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서 탈락되면 급수가 내려가거나 심한 경우 교원직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강급시험은 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시험이며, 매년 이 시험을 앞두고 교수강습대학 간부들과의 뇌물을 통한 로비까지도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sup>77)</sup>고 한다.

위와 같이 북한에는 엄격한 국가교원 심사승급제도가 있다. 각급, 각 유형의 교원들은 모두 반드시 시험에 통과하여야만 승급할 수 있는데, 매년 한번씩 교원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원들의 학습상황을 검사한다. 교직을 시작하여 5년이면 승급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합격하면 한 단계 승급하고, 만약 시험에 세 번 불합격하면 한 단계 낮아진다. 1급 교사라 하더라도 5년 유효기간 후 1년에 한번 치르는 시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2급으로 강등되고, 교원의 보수 및 대우는 교원급수에 따라 변동된다.

76) 한만길 외(2000), 상계서, p.107.

77) 한만길 외(2001), 전계서, p.127.

### 3.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북한의 교원교육은 학생들에게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 및 김일성이 제안한 사회주의 교육학을 철저히 습득하게 하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졸업 후 각급 학교의 교사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후세대들에게 모범적 사상적 성향을 보여 주면서 교육할 수 있어야만 소위 ‘공산혁명의 든든한 후비대’를 양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에 대한 교육적 이해 및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보다 공산주의 교양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sup>78)</sup> 1962년에 김일성이 행한 「보통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이와 같은 북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잘 나타나 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공산주의적 품성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졸업시켜 교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적 품성을 갖추지 못한 교원은 아무리 많이 양성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sup>79)</sup>

이러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편찬된 북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이 전공별 과목 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계급투쟁에 관련되는 과목을 필수로 제시하고 있다.

<표 9> 북한 교원양성대학의 교과목 및 수업시수<sup>80)</sup>

구 분	과 목 명	(총)수업시간수	비 고
공통과목	• 당투쟁사	260	70(자연계)  (1학년) (1학년)
	• 마르크스·레닌주의	260	
	• 정치경제학	180	
	• 철 학	140(인문계)	
	• 군사학	*	
	• 교육학	260	
	• 심리학	80	
	• 조선문학	120	
전공과목	• 각 전공별 영역	400	
계		1,700(인문계)	1,630(자연계)

\*대학생 군사훈련 4년간 총 2,740시간

78) 한중하 외(1994), 전계서, p.34.

79) 김일성(1962), 「보통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에 대하여」, 김형찬 외(1990), 전계서, p.421에서 재인용

80)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p.1313, p.1320  
안기성 외(1998), 전계서, p.125에서 재인용

<표 9>에서 보듯이 교원양성대학들은 공통과목으로 당투쟁사 260시간, 마르크스·레닌주의 260시간, 정치경제학 180시간, 철학 140시간(자연계 70시간) 등으로 정치사상 강좌가 총시수 1,700시간의 50%(자연계는 47%)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원교육에서 사상교육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대학생들은 4년 재학기간 중 총 2,740시간의 군사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 바, 이 역시 사상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시되므로, 북한에서의 예비교원 사상교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의 교원양성대학은 각기 교육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구성도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은 대체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초과정으로서 정치사상 과목과 교양과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일성 혁명역사, 주체철학, 김일성저작 등 정치사상 과목과 수학, 인체해부학 등 자연과학 과목을 포함한다. 둘째는 교육학 과정으로서 교육학, 심리학, 교육방법론, 교육실습 등의 과목을 포함하며, 셋째는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이 있다. 이 세 과정의 과목 구성비율을 보면 정치사상(15%), 교양(10%)을 합하여 기초과정은 25%정도이며, 교육학 과정은 15%정도이고 교과전공 과목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sup>81)</sup>

교원양성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원대학은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예능 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주로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능 과목을 중시하고, 교원대학에 설치하고 있는 주요 교과목은 김일성혁명역사, 김일성과 김정일의 아동시기, 주체철학, 교육학, 아동문학, 외국어, 각과 교수법, 음악, 무용, 미술, 교육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82)</sup>

3년 동안 반드시 배워야 할 기초과목으로서 교육학, 심리학, 교과교육, 교수법들을 배우게 되며 실습, 시험, 답사를 통하여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교원대학의 교과목은 다음 <표 10>과 같다.

81) 한만길(1997), 전계서, pp.241~242.

82) 한만길(1997), 상계서, pp.242~243.



<표 10> 북한의 교원대학 교과목

교과목명	비 고	교과목명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혁명역사</li> <li>• 김일성 로작(현행당정책포함)</li> <li>• 김정일 혁명역사</li> <li>• 김정일 로작</li> <li>• 교육학</li> <li>• 심리학</li> <li>• 철학</li> <li>• 외국어(영어, 로어)</li> <li>• 국문강독(5대 혁명가극분석)</li> <li>• 문화어(우리말 문법)</li> <li>• 수학</li> <li>• 물리</li> <li>• 화학</li> <li>• 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li> <li>• 체육(체조, 탁구, 배구, 축구, 농구, 수영 등)</li> <li>• 김일성 어린시절 교수법</li> <li>• 김정일 어린시절 교수법</li> <li>• 음악 교수법</li> <li>• 우리말 교수법</li> <li>• 썸세기 교수법</li> <li>• 무용(유치원 노래와 춤동작)</li> <li>• 여학생실습(음식요리, 봉제)</li> <li>• 체육무용(예술체조)</li> <li>• 사로청, 소년단</li> <li>• 군사훈련(야외훈련 및 실내병기학)</li> <li>• 교육실습</li> </ul>	

※ 탈북 교육자 김명신과의 면담에 근거하여 작성된 자료임

[출처 : 백종억, 유위준(2002), 『북한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제18권 제1호, p.82.]

교과목 내용은 모두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었으며, 유치원과 소학교 교사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소학교에서 체육교원만은 전공교원(남한의 교과전담교사)을 양성하여 배치하는 바 체육과에서는 체육교원 양성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사범대학은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때문에 전공과정은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부합하도록 전문 교과와 교원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의 전공은 김일성 혁명역사, 조선어문학, 역사, 지리,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체육 등 학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학부 졸업생들은 보통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주요 공통과정은 김일성 혁명역사, 김일성과 김정일 저작, 조선노동당사, 주체철학, 교육학, 심리학, 교육심리학, 교육교양방법, 각과교수법, 외국어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각 전공과목이 있다.

김형직사범대학은 6년제이며, 지방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관리를 양성한다. 이 대학은 김일성 혁명역사, 주체철학, 교육학, 국어문학,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예술, 체육학부가 있으며, 재교육학부와 각 학부에는 예비과가 있다. 특히 이 대학에는 북한에서는 유일한 교육학부가 있고, 이 학부에는 교육학, 학교전교육과 심리학의 3가지 전공이 있다.

북한에서 교원들은 전공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진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사상 과목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어서 정치과목의 수업시간수가 총 수업시간의 8분의 1 정도 차지한다. 또한 정규적인 수업시간 외에 토요일 정치학습 등 전문적인 정치학습 시간이 따로 있고 시간을 정하지 않은 정치모임과 강연도 많다. 각 대학의 사로청(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sup>83)</sup>) 활동도 아주 많은데 당의 정책 선전대를 조직하여 공장, 광산, 기업과 농장, 가도에 내려가서 강좌, 자문, 문예연출 등의 방식으로 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설명하기도 한다.

교원양성대학인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전공으로 제공되는 교육실습은 해당 부속 학교나 유치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다른 시·군의 학교나 유치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부문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교육방침을 깊이 연구 체득하며, 교육교양사업을 직접 해보면서, 전공부문의 지식을 공고히 하고 능숙한 교육방법을 익힐 것이 요구된다.<sup>84)</sup>

---

83) 1996년 1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1 북한연감」, 연합뉴스, p.697. 신효숙(2001), 전계서, p.288에서 재인용

84) 김형찬 외(1990), 전계서, p.421.

## V. 통일지향적 교원양성 체제

통일에 수반되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 등 인간의 내면적 통일은 교육이 담당할 몫이다. 교원은 교육에 있어서 모든 교육활동의 주체이며 교육발전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기에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모색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교육을 이끌어 갈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남북한에서의 교원양성 교육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서로 다른 이념을 지닌 두 체제의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을 비교하고,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 및 진정한 의미의 사람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통합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특징 비교

지금까지의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관과 지위,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그리고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사관 및 지위

남한과 북한의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특징 비교는 우선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규정의 차이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원은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 그리고 자유와 존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적, 정의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성장·발달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물

론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은 존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원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도의 전문적 자질과 윤리의식 그리고 건전한 교직원과 교직 태도를 구비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은 교육자로서 품행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하고, 성실하게 교육활동에 전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 교원은 공산주의 혁명의 계승자를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지위도 보장되고 있다.<sup>85)</sup>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 담당자이다.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은 ‘직업적 혁명가’이며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의 ‘원중장’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교원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남한에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질에 비교하여 볼 때, 북한에서의 교원의 역할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이나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인간교육·인격교육보다는 학생의 공산주의 혁명 도구화를 지향하는 정치교화·인간 개조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교원은 그 자신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춘 목적적·자주적 존재로서보다는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이라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과 수령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쓰임 받는 수단적·도구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은 교원을 학생과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개성과 소질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도모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은 ‘후대의 혁명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남한의 교육이 학생 개인의 발달을 우선시하는 데 반해, 북한은 교육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데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학생의 인격형성을 돕고 참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배적 전통의 스승상과는 거리가 있는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85) 한만길(1997), 전계서, p.235.

## 2)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다음으로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특징비교는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한의 초등교원은 4년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과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3년제 교원대학에서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중등교원 양성은 4년제의 국립과 사립대학, 사범계와 비사범계 대학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중등교원은 4년제의 사범대학에서 주로 양성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원양성 기간을 살펴보면 북한의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은 교육년수면에서 남한과 비교해서 취학전 교육기간을 제외할 때, 북한의 교원대학은 남한의 11-13학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한의 고등학교 2·3학년과 대학 1학년 수준(과거의 사범학교)이며, 북한의 사범대학은 남한의 11-14학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2·3학년과 대학 1·2학년(전문대학)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불과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소학교 교원이 되기도 하고, 만 20세에 중학교 교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원 연수는 교원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교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교원 개인의 전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직전교육인 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날로 변화해 가는 시대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와 지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즉,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연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한에서 교원의 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up>86)</sup>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내지 제38조에서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7)</sup> 남한에서 교원의 연수도 이상과 같은 법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86)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전게서, p.9.

87)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상게서, p.1488.

남한에서의 교원 연수의 종류는 대체로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그리고 특별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교원 재교육체계는 재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보통교육 부문에서의 교원 재교육체계, 기수(기사보다 낮은 직급)를 양성하는 전문학교의 교원에 대한 재교육체계, 대학교원에 대한 재교육체계 및 교육행정가들을 위한 재교육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88)</sup> 보통교육 부문에서의 교원 재교육체계는 유치원 교양원, 소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정규적인 재교육체계이다. 교원재교육 강습소는 종래 각 사범대학에 병설되어 있었지만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실행과 함께 교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하여 1974년부터 각 시·군에 개설하였다.

북한의 교원양성 교육의 발전에 따라 통신교육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정규의 재교육체계가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 재교육은 각 도·시·군 단위에 설치된 ‘재교육강습소’에서 실시하며,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재교육강습소’에서 실시하는 ‘자질향상시험’을 통해 전체 교원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이를 정치사상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남북한 교원 연수는 남한에서의 교원연수가 강제성을 띤 타율에 의한 연수가 아니라 자신의 수업능력 향상과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자율연수의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 북한에서의 교원 연수는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회면에서는 자주 제공되고 있으나 자질향상시험을 통한 정치사상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어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남한에서 교사의 승진은 근무연한과 깊은 관계를 갖지만 북한에서는 승급시험을 치러야 승진이 가능하며, 만약 승급시험에서 성적이 나쁠 경우에는 교원으로서의 등급이 낮추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교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어 남한에 비해 북한이 교원 승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8) 박태수(199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범교육체계와 그 특징”, 「동북교육과학」(1993년 제2호)(중국연길), pp.45~46. 안기성 외(1998), 전제서, p.128에서 재인용

### 3)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의 역할 규정에 따른 남북한의 차이는 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자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먼저 남한의 초등교원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은 졸업 이수학점이 평균 144학점으로 교양과정이 37학점, 전공과정이 107학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북한과 매우 상반되는 대비를 이룬다. 교육대학 이수학점 중 전공과정이 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원양성대학에서 전공과목 내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교직적 지식과 기능 및 방법을 교육대학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양과정에서 이수하는 과목들도 정책과목과 전공이수를 위한 선수 또는 도구과목, 학문의 기본개념과 탐구방법에 접근하는 과목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교원이 그 자질과 자세를 철저히 혁명화·노동계급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사로서의 자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 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해서 전문가의 수준에 이를 정도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원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학습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지침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원양성대학의 교과목과 시간수를 보더라도 교원의 정치사상적 교육을 어느 정도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사범계 대학은 4년간 공통필수 과목으로서 당투쟁사가 260시간, 주체사상 관련 강의가 260시간, 정치경제학이 180시간에 달하고 있어서 총 수업시수인 1,700시간의 4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정치교양학습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전공영역의 전공과목 수업은 400시간에 불과해 총 수업시수의 24%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남한 교육대학의 전공영역이 74.3%, 사범대학의 전공영역이 평균 79.5%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남한의 교원양성대학 교양과정 영역은 교사가 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적 지식과 기능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목으로 설정되는데, 교·사대 큰 차이 없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과학, 예·체능, 외국어 영역에서 골고루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교양과정 영역은 정치사상 과목,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로작,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문헌, 현행 당정책, 정치경제학, 철학 등을 전학년에 걸쳐 배움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족벌체제를 우상화하고,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주체적인 공산주의 인간으

로 기르기 위한 의도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교원양성대학들은 모두 교육학 및 교직과목을 일정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교육전반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교육적 소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관련 영역에서 다양한 교수법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지도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교육과정 결정권이 점차 중앙에서 지역 및 학교 수준으로 이양되고 있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교원양성대학에서도 교육과정 과목을 통해 이론적·학문적 내용 및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을 지도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과정은 철저한 중앙집권식 교육과정으로 교사들은 있는 그대로의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 교원들의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 교육대학에서는 전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나, 교과별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특정분야의 교과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는 반면에, 사범대학은 과목별 교과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의 교원대학에서 초등은 전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사범대학에서는 특정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점은 비슷하다. 즉, 북한의 사범대학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도록 전공별 교과교육을 중점 지도하고 있지만, 정치사상과목, 일반사회과목은 학과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배우며, 교육실습을 강조하고 교과를 통한 사상교육에 힘쓰고 있다.

## 2.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

교원양성제도는 장차 2세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을 길러내기 위한 제도로서 교육의 성과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 후 한국에 있어서 교원양성제도는 통일한국의 교육목표 및 철학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적·질적인 면에서 훌륭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체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교원양성체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오랜 민족분단으로 정치체제와 통치이념을 달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육이념과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교원양성제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질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원교육 목표 및 교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교원양성 교육을 위한 기본 구조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서로 다른 이념을 지닌 두 체제의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1) 교원교육의 목표 및 교원의 역할 재조정

교원교육의 목표 및 교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원양성제도는 오랫동안 각각 남한과 북한의 2세 교육 및 교육을 통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통합의 기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원양성제도는 이러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유사점을 찾아 교육의 보편적인 기본 목표를 지향하는 체제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공히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가치관 및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통일 한국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에서 교원의 역할은 교육목표 달성에 헌신·전념할 것을 기본 전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교원의 구체적 역할은 '통일 한국의 교육목표 달성을 지향하여,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지적·정의적·신체적·사회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는 조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춘 목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 2) 교사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

통일 한국에 있어서의 교사양성은 교사교육의 질 관리 및 교원자격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교사양성 기능을 인정하는 평가인증제를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후 교원양성체제 통합을 위하여 남한의 경우 수요를 초과하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일반대학 및 비 사범계열의 학생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다양한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사범대학과 교원종합양성대학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도 바람직하다. 더불어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분명 교원양성도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의과대학 6년, 건축학 관련 학과가 5년제인 점을 감안하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연한을 5년제로 확대 개편하여 현행 정규 교육과정에 북한의 교육학과 같은 과목을 교양 또는 교직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교과과정 이수 후 1년을 교육실습과 현장적용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한편, 이 기간에 대학교육이 불가능하다면 북한 지역으로 답사를 실시하여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알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통일 후 북한의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 3) 합의 가능한 교사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남북한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북한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사상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비중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예를 들면 문화의 차이와 국가를 초월하여 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비롯하여 기초지식과 기능, 과학기술 습득능력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교육내용에는 일반적인 지식과 가치 관련 부분이 많은데 교육내용의 체계 중에서 정치사상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에 관한 내용이다. 예컨대 우리말에 대한 이해, 수학과 과학, 외국어, 한문에 관한 교육내용을 들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말과 문자에 대한 교육, 기초적인 수리 교육, 수학과 과학 분야의 기본적인 원리, 외국어와 한문에 관한 지식 등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는 정치사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사 교과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로의 입장과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 4) 교육통합을 위한 학술 교류·협력의 확대

한편 남북한 모두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 국가로서 남북한 모두 민족의 최대 과제는 통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관한 문제로서 사람의 내면적인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의 통일을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육통합을 현재 남북한 교육이 서로 간에 연계됨이 없이 분리되어 있는 교육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가면서 하나의 교육체계를 지향하는 것<sup>89)</sup>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통일 이후 실질적인 사람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통합의 실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남북한의 교육통합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동질성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며, 통일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교육의 교류·협력은 실효성과 지속성에서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은 자연과학과 같이 이념 논란에서 자유로운 순수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특히 남북공동 관심사인 고구려사 문제 및 독도에 대한 공동연구 등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교류와 협력이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원하여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이 깊은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분야와 연계하게 된다면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을 질적으로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류나 학술교류의 경우는 자매결연을 통한 사업 확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90)</sup>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 교류의 단계로는 접촉, 친

89) 박세홍(1998),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초등교육과정 통합방안연구-편제와 교육내용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p.7.

90) 남한의 성균관대학교와 북한 고려성균관의 자매결연, 그리고 남한의 경남대학교와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과의 자매결연은 선구자적인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창주(1999),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육정책”, 「북한연구」, 제2권,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p.23.

선, 공동기구 설치, 물적교류, 인적교류, 학술회의 개최, 특정주체에 관한 공동연구, 연구자료의 교환 등이 협력관계 형성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남북한 교육관계 자료와 정보의 교환, 고등학술 연구사업 실시, 남북한 교육관계자 교류, 수학여행 및 고적답사, 남북학생 공동생활 경험의 유도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교류·협력 관계 위원회의 설치와 연구의 지원, 그리고 소요기금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91)</sup>

## 5) 교육체제 및 제도의 통합 방안 마련

결국 남북한이 통일되면 교육통합 작업이 진행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과제라고 보여 지는 데 교육통합은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즉 제도적 통합, 내용의 통합, 학교생활의 통합, 구조적 통합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교육체제의 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일 것이다. 교원제도의 통합을 위해 교원양성 및 재교육 제도에 대한 정비와 통합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교육체제를 변화시켜 나아갈 교육통합의 하나의 방식인 표준교육체제<sup>92)</sup>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남북교육회담’을 군사·경제관련 남북회담과 병행 제의하여 남북한 교육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당기간 동안 연구와 토의를 거쳐 교육이념에서부터 학제, 교육행정체계, 교육재정, 교과목, 교원양성체제 문제 등 전반적인 교육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상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상설 협의기구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에서도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우리 체제의 우월성만을 강조했던 교육에서 벗어나 북한 사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북한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는 상호 평화공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91) 김태완 외(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92.

92) 문용린(1991), “통일후의 교육체제 구상”,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방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99.

의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적, 참여적, 실천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공존에 기초하는 통일교육에 준하여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로 민족사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와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족사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로 언어 통합, 역사 통합, 민속놀이 개발 보급으로 나누어 실천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언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남북간의 단어·발음·문장 및 맞춤법의 차이 해소, 표준어 및 문화어 개념 정립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등 기본법 제정을 위한 남북한 한글학자 협회회의 정례화를 통한 표준어 규정 제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어 통일의 필요성과 동질성을 강조한 남북 공통의 통합사전 제작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역사 통합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단군 조선의 한 뿌리임과 고구려사, 독도 등의 공동 연구를 통한 중국·일본과의 대응 및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역사학자 협의회’ 구성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체제와 이념에 큰 구속을 받지 않고 추진 할 수 있는 민속놀이 개발 보급은 남북 전통 민속놀이와 우수 민속놀이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격년제로 남북에서 전통 민속놀이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예술 등 공유 가능한 분야를 적극 개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교사의 상호 방문 및 파견 교사제 운영과 학생의 상호 방문을 위한 수학여행, 간부 학생의 상호 방문 및 교환 학습도 추진하여 학생 또는 교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발굴하여 이를 남북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시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이산가족 상호 방문의 정례화와 편지·E-mail 왕래 및 점진적으로 대중매체의 개방 등 실생활 중심의 접근과 문화 사절단의 상호 방문 확대, 체육 교류의 확대, 국제 행사 상호 협력 등 지속적인 문화·체육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통일 후 민족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중 언어통합, 역사통합 및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지원 등은 남북간 관련 전문가와 남북한 당국의 상호 협약 및 합의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남북한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그 내용에 의하면 남북의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제16조), 자유로운 왕

래와 접촉(제17조)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미 합의된 합의서 준수를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통일 후 남북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고 그 혼란과 갈등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순수한 차원에서 예술, 체육, 역사유물 등에 관하여 사전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배제하고 그 동안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따른 교육적 차이, 즉 교육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VI. 결론 :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남북한 교육양성체제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하여 통일지향적 교원 양성체제를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비교 고찰하면서, 남북한 교원양성체제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 교사관과 교원의 지위,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그리고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III장과 IV장에서는 비교 분석의 틀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교원양성체제를 각각 고찰하였고, V장에서는 남북한의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을 분석 틀에 따라 비교분석한 다음,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의 초·중등학교와 교원 양성대학은 각각의 체제에 부합하는 교육이념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때문에 초·중등학교와 교원 양성 대학도 교육과정의 결정과정,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남한의 초·중등학교와 교원양성 대학은 중앙집권 및 획일화를 지양하고, 교육과정 결정의 민주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지향하여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목표를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초·중등학교와 교원 양성 대학은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중앙집권적 체제와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상화교육과 사상교육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교원양성에 대한 비교·검토의 과정을 통하여 교원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남한이 개인주의적이면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파 및 실천자로 교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학교제도도 분단이후 사회이념과 체제를 달리함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발전해 왔는데, 우선 남북한 학교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남한의 6-3-3-4의 기본학제와 북한의 4-6-4의 기본학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초  
등교육 단계에서 남한보다 2년 정도 짧다는 것이다.

기본 학제의 차이에 따라 남북한의 교원 양성을 위한 절대 교육기간 면에서도 근본  
적인 차이가 있는데, 북한의 경우 교원양성기간이 남한의 전문대학 수준인 12년 정도로  
교원양성 교육 년한 면에서 2년 정도 짧다고 볼 수 있다.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에서도 교과내용 및 교육학 등 전공과목에 대한 비중은 남한이 훨씬 높으나, 주체사상  
교양, 공산주의 교양 등 교양과목에 관한 비중은 북한이 아주 높는데 이는 북한이 전  
학교 교육과정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의 교원 연수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그리고 특별연수 등으로 구  
분되며, 교원은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도록 법  
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으로 연수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의무 사항은 없다. 반면 북한에서의 교원 연수는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사상 제고를 위하여 교육·교양하는 재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분류  
된 재교육 체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원들의 신분과 보수에 관련 있  
는 교원 승급 및 강급 시험을 의무적으로 연간 1회씩 치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중등학교 및 교원양성 대학의 학제, 교육과정 등의 통합을 준비하는 노력이 요  
구되는데 남한과 북한은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정치체제 하에서 정치사  
상과 교육이념 및 사고방식을 달리하여 교육활동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상호 이질  
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인 학제, 초·중등 교원양성 체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방식 등에서 상호 유사한 점도 많이 있다. 이를 바탕  
으로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교육의 목표 및 교원의 역할 재조정이다.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공히 국  
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가치관 및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는 교육  
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통일 한국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  
당할 교사의 양성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에서 교원의 역할은 교  
육목표 달성에 헌신·전념할 것을 기본 전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교원의 구체적  
역할은 '통일 한국의 교육목표 달성을 지향하여,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학생들이 지적·정의적·신체적·사회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는 조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춘 목적



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이다. 통일 한국에 있어서의 교사양성은 교사교육의 질 관리 및 교원자격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교사양성 기능을 인정하는 평가인증제를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합의 가능한 교사교육 교육과정의 운영이다. 남북한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북한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사상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비중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예를 들면 문화의 차이와 국가를 초월하여 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비롯하여 기초지식과 기능, 과학기술 습득능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라도 정치사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사 교과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로의 입장과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교육통합을 위한 학술 교류·협력의 확대이다. 남북한의 교육통합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동질성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며, 통일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교육의 교류·협력은 실효성과 지속성에서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은 자연과학과 같이 이념 논란에서 자유로운 순수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특히 남북공동 관심사인 고구려사 문제 및 독도에 대한 공동 연구 등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체제 및 제도의 통합 방안 마련이다. 결국 남북한이 통일되면 교육통합 작업이 진행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과제라고 보여 지는 데 교육통합은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즉 제도적 통합, 내용의 통합, 학교생활의 통합, 구조적 통합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교육체제의 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일 것이다. 교원제도의 통합을 위해 교원양성 및 재교육 제도에 대한 정비와 통합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추진한 결과 남북한 교육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하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의 방향 및 진정한 의미의 사람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통합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한 교원양성체제의 비교를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었으나, 통일 후 원만한 교육통합을 위하여 두 가지만 제언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남북한 교원 양성체제 비교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교육이념과 목적, 교육제도를 살펴보았으며, 비교분석의 틀로 교사관과 지위,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연수,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는데 앞으로 교과서 개발과 각 영역에서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교원 복지, 후생, 교원조직 및 운영 등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노력과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후 교육을 담당할 남북한 교원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의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남북한 모든 교원들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동의 시간과 공간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운빈(1989), 「인간개조이론」, 사회과학출판사편(1985), 서울:도서출판 조국
-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교육법전」, 교학사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文脈社
- 김동규·김형찬 해설(2000), 「북한교육사(조선교육사 영인본)」, 서울:교육과학사
- 김동규(1998), “남북한 학교 교육체제의 이질화 과정과 통일 후의 동질화방안”,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 서울:소화
- 김형찬 외 6인(1990),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 안창선·남경현·이옥범(1999), 「교사론」, 교육과학사, p219
- 신효숙(2001), “북한의 교육·문화”, 「북한학 입문」, 들녘
- 안기성의 4인(1998),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집문당
- 이미경(2006),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2006 북한의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 한만길(2003),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 <논문>

- 강혜정(2001), “통일이후 남·북한 교육체제 통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성준 외 4인(1996),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 통일대비 교육통합단기대책 연구위원회
- 김영주(2002),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기관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완 외 3인(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문용린(1991), “통일후의 교육체제 구상”,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방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세홍(1998),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초등교육과정 통합방안연구-편제와 교육내용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 백종억, 유위준(2002), “북한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제18권 제1호
- 신호숙(2001), “북한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1호
- 신호숙(2004),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1945-1960)”, 북한연구학회 2004년도 연말학술회의자료집
- 윤종진(2004), “김정일등장 이후의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변화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통일연구원
- 이규환외 2인(1990), “북한의 고등교육체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편
- 이종석(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 이종재외 4인(2003), “북한 교육 체제의 특성과 기능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창주(1999),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육정책”, 「북한연구」 제2권,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임선택(2000),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순희(2005),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 전순익(1995), “남·북한 초등교원 양성제도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 전정태(1997), “남북한 교원양성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 정영순외 6인(2002), “통일대비 북한교과서에서의 교육이념 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난심외 5인(1996), “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정아(2005), “북한의 교육: 체계와 문화”, 북한연구학회 주최 하계 학술회의
- 조호연(2004),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2006), “김정일 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최문성(2000), "통일한국의 교육체제에 관한 일 고찰", 「초등도덕교육」 제6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최영표, 한만길, 김홍주(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영표외 3인(1994),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한종하, 이윤식, 유현숙(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김창환, 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외 3인(2000), "북한 교육관계 법령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외 4인(2001), "남북한 교육체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윤종혁, 이정규(2001),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 <북한원전>

김일성(1977),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정일(1991), "김정일 저작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일(1984),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1984. 7. 22.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사회주의헌법(1998 개정 헌법)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eacher Education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

Lee, Ae-Si

Major in National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a unification-oriented teacher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teacher education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To do this, educational policies and institutional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reviewed and contrasted, in which teacher roles, status of teacher,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are provided for the analytical framework to the comparison in Chapter II. According to such a framework, both teacher education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investigated in Chapter III and Chapter IV, respectively. In Chapter V, a new direction is suggested for a unification-oriented teacher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two systems.

---

\* This study is submitted to the inspection & approval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for a master's degree in pedagogy in August, 2006.

Teacher education systems differ in many way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at the two have been under different ideologies and political systems for over half a century, Yet, they also have some similarities from a broad perspective, such as the basic system for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al years and management of primary and secondary curriculum. Referring to thos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e present a new direction for the unification-oriented teacher education. First, the purpose of teacher education and the roles of teachers should be reconceptualized. Second, to control the quality of teacher education, teacher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ird, include an agreement on curriculum for teacher edu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urth, academic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ll be expanded looking forward to a unification in education systems. Finally, proposals on unify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ystems should be offered.

